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19일(음력 2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671 호

집중기획 **포교·신도단체 공간부족 현황과 대책**

전법 일선을 뛰어야 할 포교·신도단체가 사무공간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최근 조계사 교육관에 입주하고 있는 포교원 산하단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사측으로부터 5월 15일까지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공간 개선 및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다. 단체들은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도 당혹스럽지만 그보다 사무실을 옮길 일이 더 걱정이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포교원도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선 현재 건립 중인 '전법회관'이 오는 8월 완공되면 단체들의 공간문제도 자연히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행과 전법'을 지표로 내건 조계종이 겪고 있는 포교·신도단체의 공간부족문제와 해결방안을 짚어본다.

툭하면 짐 싸라니… 전법활동 어디서?

전법회관 완공 돼도 사무실 여전히 태부족

2천~6천만원 입주 보증금 부담도 큰 문제

▲1년에 한 번 이사 '짐 싸는 게 일이에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이삿짐을 꾸렸다. 그때마다 종단은 '공간확보'를 약속했다. 전법회관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4~5년 새 세 차례 이사를 했던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달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청년회 사무실이 있던 부지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우리함께회관 내 33㎡(10평) 공간에 간신히 짐만 부려놓은 대불청은 전법회관이 완공되면 다시 이사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임시로 공간을 마련한 종로구 경운동 건물 내에 둥지를 튼 신도단체도 이처럼 전법회관 완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법회관이 모든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부족'이다.

전법회관은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건립된다. 각 층은 330㎡(100평) 정도다. 전법회관 공간 중 중앙신도회를 제외한 포교단체 5곳, 신도단체 9곳에 배정된 공간은 429㎡(130평). 1개 단체 당 33㎡(1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다. 화장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가용면적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회의공간은 제외하더라도 상근활동가 4~6명의 책상과 관련 자료를 둘 곳만도 빠듯하다.

대불련과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타 등은 현재 66㎡(20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의 경우 사무공간 외에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등 방음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상담개발원이 전법회관 입주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전법회관 공간 활용계획에 따르면, 전법회관 8~9층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의 방사로 쓰인다. 7층은 불교신문, 6층은 문화유산발굴조사단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나눠 사용하고 99㎡(30평)만 포교단체에 배정됐다. 5층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출판사가 사용하고 4층에는 교육장 2개소가 들어선다. 3층에는 대불련, 대불청을 포함한 신도단체들이 입주한다. 2층은 불교인재개발원 등의 중앙신도회 부속기관이, 1층에는 출판사 판매매장과 중앙신도회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전법회관 입주하려면 보증금 내야=이처럼 전법회관 내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보증금'도 부담이다. 중앙신도회가 단체들에 제시한 입주 분담금은 후일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임대보증금이다. 이는 중앙신도회가 전법회관 건립기금을 모연하는 것으로, 종단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이 총무원 재무부의 설명이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은 "중앙신도회가 제시한 보증금은 3000만원 정도로 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그나마 단체의 여건을 배려하지 않고 1개 층에 신도단체들을 다 입주시키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지연 지도위원도 "공간 문제가 안정되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음에도 현재는 사무실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다"며 "일단 전법회관 완공까지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불청 김도헌 조직팀장은 "전법회관에 입주할 계획"이라며 "신도단체들 마다 특성도 있고 필요 공간의 편차도 있는데 배정된 공간이 적어 입주 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교·신도단체의 전진기지'를 자초하던 전법회관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2006년부터 건립이 추진된 전법회관은 한동안 부지 매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건립 당시에는 중앙신도회가 부지 외에 15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2면에서 계속〉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땅끝에서 보내온 봄소식 봄이 오고 있다. 3월 13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한 미황사의 돌담 위로 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추운 겨울을 견디며 모두가 기다린 봄. 시절을 기다려 꽃을 피운 매화가 그 봄이 왔음을 알린다. 도량에 핀 매화 향기가 돌담을 넘어 남녘 땅끝에서 봄소식을 전해온다. 해남 미황사=글·사진/ 박재완 기자

"사찰 앞 철로건설 웬말"

관음종 약사원, 철도시설公 추진 반발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2리 주민들에게 이상한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울산 포항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자명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땅에 철로가 건설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주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주민대표는 설명회를 자명2리 마을회관으로 직접 와서 해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월 11일 자명2리를 방문해 마을 앞쪽으로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자명노선 반대촉구위원회'를 결성해 투쟁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자명2리에 죽산 관음종 종정 스님의 주석사찰인 포항 약사원이 있어 만일 예정대로 철로가 들어 설 경우 수행 환경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관음종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번 철로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제 강점기에 개설된 철로를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경주에서 철로를 걷어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철로는 약사원 일주문에서 15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 후에도 소음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년에 두 번 안거를 여는 등 교육수행 도량 역할을 하고 있는 약사원으로선 만일 철로가 건설되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3월 5일 약사원에서 종정 죽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홍파 스님, 교무부장 대광, 사서실장 도각, 감찰국장 도법 스님 등 10명이 모여 '전통사찰 약사원 앞 철로건설 저지 종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로 건설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광, 도법, 효천, 지선, 호명, 도각 스님 등 6인으로 정했다. 산하 위원으로는 총무원 부국장급 스님들과 죽산 문도회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4면〉

포항=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분과위 활동 분주

분과별 주요현안 점검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8일 제176회 중앙종회 개회를 앞두고 각 분과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는 3월 1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포교활동 관련 주지 평가제도 마련'에 대해 9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완)는 11일 ▲'사패산보상금및 봉선사 주지직무관련 의혹조사소위원회'를 재심호계원의 심판 종결 시 까지 존속시키며 ▲사패산보상금은 본래 교부된 목적에 맞게 회룡사로 환원해 사용하도록 사회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는 13일 지난해 12월로 만료된 교육불사분담금 납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관람료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관람료사찰 주지는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부처님 제일 공양 "청다향" 한국 최초 식품공학과 연구 분석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108참회 건강호흡 피톤치드 향으로!!
KBS ITV 생로병사의 비밀 "피톤치드" 방영에 이어
"뇌를 깨우는 108배" 도우는 향기나와 …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편백, 솔, 쑥 등 산야초에 담긴 황금빛 향기법등을 증류로 빚은 향이 불사의 새바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숲속 향기 속에서 108참회 수행으로 간절한 발원만큼 불자님의 건강성취도 소중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부처님 공양물을 대상으로 식품공학 분석은 물론 실용특허를 취득하여 제품의 신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다향 합장

실용특허 제0164576호
▪108참회도량 전용 향 문의 :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호남판 신설 ▶6면

금주부터 지면 일부 조정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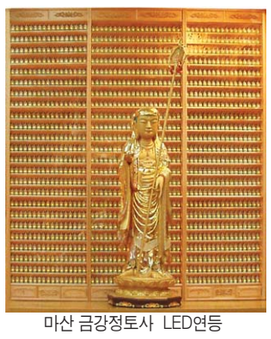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사업추진 위한 공간확보 급선무”

<1면에서 계속>그러나 기존 중앙신도회 건물 부지만으로 부족해 조계사 땅을 증여받고 총무원이 20억 상당의 인근 토지를 구매해 현재 규모로 건립이 확정됐다.

건립이 시작된 후 건설비용 등 관련 비용 일체가 총무원에서 지급되고 있고 중앙신도회는 부담금 15억 중 5억원을 입금한 상태다. 조계종 출판사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도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 정도를 출연했다.

결국 건물의 ‘주인’이 종단이고 중앙신도회와 산하 단체들은 ‘입주자’ 신세가 된 것이다. 전법회관 관리는 종단과 중앙신도회, 입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현재 입주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입주 단체는 확정됐지만 단체들의 성향과 재정, 주변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협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종단·사찰도 공간 부족은 마찬가지=공간 부족을 호소하기는 종단과 조계사도 마찬가지다.

조계종은 2005년 11월, 3년의 공사 끝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개관했다. 하지만 개관 2년도 채 되지 않아 기념관 내 공간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은 불과 1년 만에 업무를 축소했고, 그 자리에 ‘직할교구사무처’가 들어섰다. 조계종은 오는 11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서울 인사동)와 전통불교문화센터(충남 공주시)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공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조계종 전법회관.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회관 입주 놓고 단체들간 분쟁 우려

“포교·신도단체 자립노력 필요” 목소리도

조계사 교육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관 1층에는 파라미타가, 3층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교류회가, 4층에는 불교여성개발원과 불교상담개발원이 입주해 있다. 강의실은 4개에 불과하다. 조계사 주지 원학 스님은 “교육관 건물은 현재 노후로 인한 누수 등으로 인해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해 교육관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현재 9월 완공을 목표로 시민선원을 건립 중이다.

조계사와 조계종의 공간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교·신도단체들이 공간 확보를 위한 자립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불교단체 관계자는 “조계사 교육관 입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공간 문제 해결을 포교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공간문제 어떻게 풀어야할까?=이번 조계사 교육관 입주단체 사태는 포교·신도단체들의 ‘사무실 공간’ 문제를 넘어 포교원과 산하 단체들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 포교단체 실무자는 “종단이 필요에 의해 종법으로 포교단체를 설립해 놓고 그동안 공간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포교원이 어떻게 풀어가는 가에 따라 단체와 포교원의 관계정립이 새롭게 되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는 “단체들의 공간 문제에 대해 포교원이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법회관의 좁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려다 보니 공연히 단체들끼리 분심(忿心)만 일으키게 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실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법회관 공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입주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하고, 입주하지 않는 단체들의 독립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포교원과 단체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 제10차 회의에서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신도교무금으로 건립되고 있는 전법회관에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포교·신도단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종단이 설립한 포교단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김영일 포교차장은 “종단 설립 단체에 대해서는 종단이 포교업무의 바탕이 되는 공간 문제를 책임져야할 사항”이라며 “전법회관 내에 산하 포교·신도단체들이 모두 입주한다면 단체들 간의 결집과 소통도 원활해 져 시너지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10·27 특별법제정 공청회 4월 2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가 4월 2일 열린다.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원학)는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타 스님은 “특별법 제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방부 및 법제처 관계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종단의 공식입장을 전하고 이런 주장이 시행령에 보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은 스님(조계종 사회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영산재’ 세계 무대에

프랑스 파리 등 3곳서 시연…3월 26일~4월 4일까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프랑스 파리와 리옹, 셍글렝 등3개 도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한다.

‘세계 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돼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연에 태고종에서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 및 이수자와 전수생 30여명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다.

당초 프랑스 측과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의 오디토리움 드 셍제르맹에서만 시연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리옹시장이 영산재에 큰 관심을 보여 리옹시립극장에서 1회, 남부 소도시 셍글렝에서 1회 추가 시연해 줄 것을 주최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영산재는 이번 파리 시연에 유네스코 본부 문화유산국 릭 스미스(Rieks Smeets)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도 초청한다. 유네스코 측에 영산재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세계문화유산 예비 지정리스트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운산 스님은 “이번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2008년 10월 세계문화유산 총회시 프랑스, 아프리카, 캐나다 등 불어권의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 계기를 삼을 계획”이라며 “이번 시연을 통해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정수로 기억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인재양성·노후복지 최선”

법주사 주지후보에 노현 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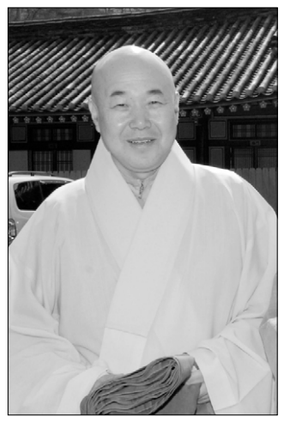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주지에 노현 스님이 합의추대됐다.

법주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산중총회를 열고 법주사 제30대 주지후보에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선출했다. 총회는 교구인단 260명 중 16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법주사는 2월 22일 문중대표 50명중 43명이 참석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노현 스님을 합의추대했다.

노현 스님은 교구 운영에 대해 “스님들의 노후 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수행과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주사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 스님은 1982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고운사 재무·총무국장, 각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각화사 태백선원장과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제30대 법주사 주지후보에 선출된 노현 스님.

손효선 기자

문화재청장에 이건무씨

국립중앙박물관장 최강식씨 임명


이건무 청장


최강식 관장

3월 7일 청장 및 차관급 인사에서 문화재청장에 이건무 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임명됐다. 불자로 알려진 이 청장은 한반도 청동기문화 전공의 고고학자 출신으로 한국고고학회장,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역사학 전공자로는 처음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된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신라사 전공으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불자인 최 관장은 3월 13일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황룡사 등 불교 문화재 복원과 불교중앙박물관의 불·법·승 기획전시 등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200만 부산불자님들의 교육과 신행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야원이 될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이 개관함에 따라 한국불교의 성지인 부산을 인류와 세계 평화의 전법지로 삼고자 합니다.
200만 부산 불자님들의 신행과 교육을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여래사가 되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상의 바쁜 걸음 이제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에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제1기 로터스(연회)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 공부 2%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체계적인 경전강좌, 교리와 수행의 일치, 역사와 미래의 조망, 국제불교교류 등으로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1. 수업시간 : 매주 목·금요일(1년과정) 19시-21시
2. 입 학 식 : 3월 27일(목) 19시
3. 접수기간 : 2008년 2월-3월 말
4. 교육과목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 인도불교사상, 중국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동남아불교의 현황과 전망, 세계불교의 흐름과 전망, 비교종교, 포교론, 상담과 복지론, 수행과 실수, 불교문화
5. 강 사 :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부산불교전문강원 강사 외 각계 권위자
6. 입 학 금 : 50,000원 7. 수 업 료 : 월 40,000원
8. 모집인원 : 120명 내외
9. 입학자격
   불교신행학교를 수료한 불자, 불교입문자과정을 수료한 불자,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
※ 특전
   포교사고시 자격시험 응시, 국제불교교류, 각계 권위자 초청강연, 문화 행사, 수계식, 재적사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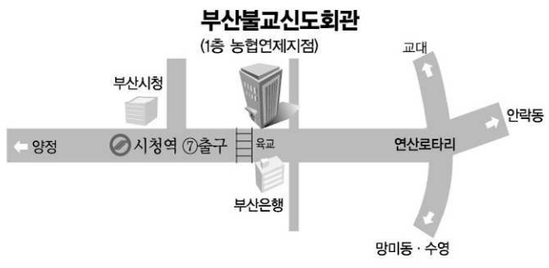
제8기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최고 지도자의 자부심을 느껴보십시오.

우주만법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CEO의 마음이 기업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과 사업을 보다 유능 하게 이끌 지혜를 생겨나게 합니다.

1. 교육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2.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19시 – 21시
3. 입 학 식 : 2008년 3월 24일(월) 19시
4. 접수기간 : 2008년 2월 – 3월말
5. 강의내용 : 불교사상, 불교와 사회, 자아명상, 문화의 이해와 증진, 리더십교육, 상담심리, 사회복지
6. 강 사 : 정인스님, 철호스님, 수진스님, 상현스님, 지안스님, 통광스님, 박광서교수, 박경준 교수, 김용표 교수, 이욱태 법사 [각계 권위자 초청 특강]
7. 입 학 금 : 100,000원(교재 제공)
8. 수 업 료 : 년 600,000원
9. 모집인원 : 60명 내외
10. 입학자격
    각 사찰 및 사암의 신도단체 임원, 신행단체 임원 및 포교사, 신행학교, 불교대학 졸업생
    불교의 지혜를 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찾아오시는 길



문 의
051)853-8539, 051)853-2021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 불교 인재 개발 원장

만해대상 평화부문

인도 로카미트라 법사


로카미트라 법사 김태길 교수 이어령 비평가 혜자 스님 로버트 버스웰

학술 김태길·문학부문 이어령씨 선정

포교부문 혜자스님·버스웰 공동 수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3월 14일, 제12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평화부문 로카미트라 법사(인도불교해방 운동가), 학술부문 김태길 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문학부문 이어령 비평가(평론가), 포교부문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UCLA)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수여한 실천 · 예술 등 6개 부문이 4개 부문으로 조정된 것이 올해 특징이다.

평화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본명 제레미 구디·62)는 1947년 런던 태생으로 교직에 종사하다 불교에 귀의했다. 그는 1979년부터 인도에서 현재까지 30여년간 인도사회의 카스트제도 철폐와 불교개종운동 등에 헌신해 온 불교인권운동가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김태길 교수(前 서울대 교수·88)는 경성대학(현 서울대)에서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화여대, 서울대 등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한국철학회와 철학연구회 회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윤리학의 태두로 불린다. 김 교수는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 마련과 현실 접목을 동시에 이룬 공적이 높이 평가됐다.

문학부문 수상자인 이어령 교수(前 문화관광부 장관·75)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고, <장군의 수염> <환각의 다리> 등 다수의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9년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천년을 맞아 뉴패러다임과 국제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도 받았다. 양승태 심사위원장(대법관)은 "이어령 교수는 한국 문학 발전은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령 교수가 보여준 문학적 업적과 문화사적 실천성과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교부문 수상자 혜자 스님은 현재 청담학원 이사장, 혜명복지원 이사장, 풍경소리 대표이사, 불교신문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스님은 2006년 9월부터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며 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이정표를 제시해 다양한 계층 포교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는다.

심사위원인 김재홍 원장(만해학술원)은 "혜자 스님의 활발한 포교활동과 업적은 2008년 만해대상 포교부문 수상자로 손색이 없다.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 3대 지표사업을 감안할 때 혜자 스님의 업적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교부문 공동 수상자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54)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UCLA 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교수 및 UCLA 불교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학 전공자로는 최초로 2008년부터 2년 임기의 미국 아시아 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학계에서는 중국학과 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의 동양학 분야에서 한국학 전공자가 학회장이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부문별 수상자의 상금은 3000만원이며,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봄맞이 대중강좌 '풍성'

불교인재개발원·불교문화연구소서 진행

강좌에도 명품(名品)이 있을까? 공신력 있는 단체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신선한 기획으로 명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강좌를 우리는 '명품 강좌'라 부른다. 봄을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원장 김응철)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잇달아 내놓은 봄철 대중강좌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자.

▧부처님 생애에서 배우는 지혜=불교인재개발원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배우는 불자 신행'을 주제로 3월 24일부터 대중강좌를 연다. 5월 28일까지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매주 1회씩 총 8차례 열리는 강좌는 부처님의 생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

▲3월 24일: <자타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부처님의 전생기 ▲31일: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 전까지를 다루는 탄생기 ▲4월 7일: 29세 출가 후 35세 성도 전까지의 출가수행기 ▲14일: 깨달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성도기 ▲21일: <초전법륜경>을 중심으로 살피는 초전법륜기 ▲28일: <아함경>으로 풀어보는 교화 전기 ▲5월 19일: <아함경>으로 풀어보는 교화후기 ▲26일: <열반경>을 중심으로 본 열반기 순으로 진행된다.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회향하는 시간이 마련된 점이다. 4월 16일과 19일은 나눔으로 회향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노숙자를 만난다. 나눔으로 회향하는 두 번째 시간인 5월 21일과 28일에는 독거노인에 대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사로는 불교인재개발원 원장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와 권기현 교수(위덕대), 황순일 교수(동국대), 이태승 교수(위덕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불교인재개발원은 개강에 앞서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반절 및 개강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735-2428

▧불교학의 대중적 이해=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 연구센터는 '불교를 보는 여러 시선들'이라는 주제로 불교아카데미 시민강좌를 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 큰법당에서 열리는 강좌는 3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성만)의 '인문한국'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을 비롯해 안성두(금강대), 정영근(서울산업대), 김천학 · 석길암(금강대), 이주형(서울대), 류제동(금강대), 조성택(고려대) 교수가 강의한다.

불교문화연구소 김성철 교수는 "국내 정상의 불교학자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불교학 강의와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을 맛볼 기회"라고 강좌 의의를 밝혔다.(041)731-3605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디지털 상품 다 모였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불교문화를 활용한 문화상품과 디지털콘텐츠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의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게 선보였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서는 유성(30·경기도 이천)씨의 작품 '연화문 백자호롱, 죽림 백자수지, 백련유백다기'가 대상에 선정됐다. 유씨의 작품은 물레를 이용해 제작한 수(手)작품으로, 연꽃을 표현한 호롱과 대나무의 청정함을 담은 물항아리, 연꽃을 응용한 다관 등이다. 심사위원단(위원장 최승천)은 "연, 꽃, 죽림 등을 사용해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상품부문 150개, 제품디자인부문 68개, 아이디어 부문 9개 등 총 227개의 작품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상에 문화상품 부문 김민지씨의 '선(禪)', 제품디자인 부문 남상우 · 김민수씨의 'HALO'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려상 4작품과 특선 8작품, 입선 27작품 등도 배출됐다. 시상식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기념관 1층 로비에서 수상작품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편,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에서 플래시애니메이션 '어느 도둑의 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어느 도둑의 이야기'는 공주 갑사에서 펼쳐지는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인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전하는 플래시애니메이션이다. 공주대 만화학부에 재학 중인 노윤식씨와 선후배 7명으로 이뤄진 '우루루'라는 팀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3개월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우수상에는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분의 박정옥 · 김선미(TOONFAC)씨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Templestay'와 김세웅씨의 '불신(佛身)'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 장려상, 특선, 입선 선정작도 발표됐다. 시상식은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작 전시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진행된다.



제1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작(사진 위)과 제4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어느 도둑의 이야기'.

자세한 공모전 심사 결과는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인터넷언론 '불교투데이' 창간

발행·편집인 향적 스님

불교인터넷언론 '불교투데이(대표 향적)'가 3월 18일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매체포교를 시작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무량회에 기반을 둔 불교투데이(www.bulgyotoday.com)는 향적 스님(선본사 주지)이 발행인 겸 편집인을, 태연 스님(약사사 주지)이 재정이사를,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이 주간을 맡아 운영한다.

주경 스님은 3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혜와 향기가 있는 언론'을 사시(社是)로, 부처님 법에 근거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창간 의의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책 모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정치적인 색채는 띄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폭로 · 정쟁보도 대신 수행과 포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837호에서 열린다.(02)738-0079

여수령 기자



불교방송 영담 스님 불교TV에 통합 제안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영상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TV와 통합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영담 스님은 3월 14일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방송은 영상사업 진출을 모색해 오던 중 지난 2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합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영상포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채널 사업자의 특성을 살려 통합을 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담 스님은 "두 매체가 통합될 경우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이 가능해져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제작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소음·일조권 침해…수행 불가능”

관음종 강력 투쟁전개 움직임
주민들도 “공사철회” 한목소리

<1면에서 계속>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50여년 된 전통사찰인 약사원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종정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관음종의 상징적 존재”라며 “사찰 바로 앞에 소음이 심한 철로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찰 수행 환경을 침해하는 훼불행위”라고 분노했다.

약사원 주지 대광 스님도 “특히 약사원 주변 암반은 현무암이 많고 지질구조가 약해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낙석이 심하다”며 “사찰 증축 때도 중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 곳에 거대한 철로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서실장 도각 스님도 “철로가 들어서면 약사원은 소음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상당히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생활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철로 건설 저지 관철을 위해 종도는 물론 포항 불자들의 협력을 얻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백진호 과장은 “3월중으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며 “하지만 철로건설은 불가피하며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약사원 뒤쪽의 철로 건설안도 열차가 대피하는 하는 곳인 부도신호장을 위한 공간(약 1.2㎞) 확보가 안 돼 지금상태로는 철로 노선 변경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명2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1월 포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나라당 포항 지구당 등을 방문해 “철로 건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즉각 공사 철회를 촉구했다.



사찰 일주문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철로공사 예정 구간을 가리키는 대광 스님.

황면수(65)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환경평가 통보 이전에 보통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10여 대째 살며 고향을 지키는 토박이들인데 현재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이어 철로까지 건설된다면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황보주 한나라당 포항 지구당 사무국장도 “최근 자명2리에 도로가 들어서 주거 환경의 침해는 물론 약사원의 수행환경 침해까지 우려되는 시점에 철로까지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듣고 불교계와 주민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안다”며 “포항시측과 적극 협조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남부선 포항 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설계를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착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비는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포항=김주일 기자

“자비정신 실천합니다”

청주청원 조계종, 연합봉사단 발족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는 3월 8일 청주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조계종 산하 ‘청주청원조계종연합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중앙공원 무료 급식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소외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것을 밝혔다.

‘청주청원조계종연합봉사단’은 용화사, 관음사, 충북포교사단, 청주봉우회 등에서 활동하던 봉사단 중 190여명이 가입, 발대식 후 기존에 활동하던 각 사찰 봉사단과 연합 봉사단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연합봉사단 총재 설곡 스님(수도원 주지)은 “한국 불교는 1600년간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연합 봉사단이 봉사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봉사단장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은 “봉사단 발족 주최가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이니 만큼 꾸준히 봉사단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놓치지 않고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원 장경석(44, 관음사 봉사단)씨는 “관음사 봉사단과 연합봉사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불자로써 자긍심을 느낀다”며 “두 봉사단 중 어느 한 곳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 청주불교연합회장 각의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홍재형 국회의원 등 사대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손효선 기자

“두꺼비 생명 지켜주세요”

대구 경북불교대학, 망월지 수질보호 팔 걷어

“두꺼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이 사찰인근에 위치한 망월지에 서식하는 두꺼비 보호에 나섰다. 두꺼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포획금지야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는 최근 국내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확인돼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다.

서식지인 인근 욱수골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수십만 마리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대규모 두꺼비 이동이 관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꺼비는 열흘 정도 망월지에 머물며 산란을 한 후 다시 서식지인 욱수골로 돌아간다.

경북불교대학은 이 같은 망월지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3월 10일부터 ‘대구망월지두꺼비보존대책협의회’와 함께 산란지 일대에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망월지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입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던 인근 식당의 오수관로를 식당업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두꺼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망월지에 ‘두꺼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10일에는 경북불교대학 불자들과 환경단체 회원 50여 명이 나서 저수지 주변을 청소하는 등 자연보호에 앞장섰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속초시 공무원불자회 만든다

3월 21일 창립법회 봉행

속초시공무원불자회(회장 박영태)가 3월 21일 창립한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회주 무산)는 지난해 100여 명의 속초시 공무원 불자를 모집해 불자회 창립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20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1차 임원회의를 개최한 공무원불자회는 초대회장으로 박영태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장을 내정했다. 창립법회는 21일 오후 7시 속초시문화회관에서 ‘속초시공무원불자회’에서 봉행된다.

속초시공무원불자회는 앞으로 연2회 시청 상황실에서 조찬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제3교구 통합법회 참석, 수계법회 및 성지순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회주 무산 스님 등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과 속초시공무원, 신흥사 복지원 산하 단체 직원 등 7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033)636-7044

여수령 기자

성무호국사 졸업법회 봉행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3월 13일 56기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졸업생도 42명과 청주 조계종 수도원 원장 설곡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법주사 부주지 무상 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400명이 참석해 생도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일면 스님은 “자주 나는 새는 그 물에 걸리기 쉬우니 국가를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손효선 기자

청화 스님 유지 이은
염불선 도량 개원

서울 강남에 청화 스님의 유지를 잇는 염불선 도량이 문을 열었다. 강릉 성원사(주지 정현) 회주 주경 스님은 3월 9일 강남구 대치동에 서울포교당인 정중선원을 개원했다.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탐진치를 버리고 마음자리를 닦는 도량으로 가꾸어달라”고 당부했다.

성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청화 큰스님의 유지와 회주 스님의 뜻을 받들어 도심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원했다. (02)3288-3386

김성우 객원기자

‘호국팔만대장경법회’ 봉행

합천 해인사서 4월 12일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4월 12일 오전 10시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48번째를 맞는 법회는 호국팔만대장경정대불사로 진행되다 지난해 호국팔만대장경법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훤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를 행사주제로 내건 이번 법회는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수행원력과 신앙심을 고취하고 호국 호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축원하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발표된다. 또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국운융창 남북통일 법륜상전’을 기원하는 해인도(海印圖) 행진을 펼치게 된다. 해인도는 화엄사상을 풀이한 도상으로, 해인사 법당 마당에 설치된 해인도를 따라 참가자들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게 된다.

법회 전날인 11일에는 특별 철야기도가, 13일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전 및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철야기도가 봉행된다. 참가비 3만원. (055)934-3105

여수령 기자

능인高 자율형 사립학교로

조계종 종립학교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은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능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광 스님은 “‘불타정신을 생활화하여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광 스님은 “본사 주지스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자립형 사립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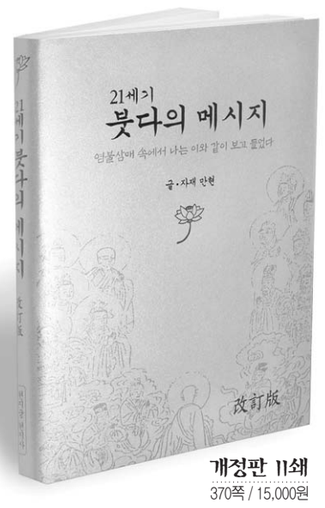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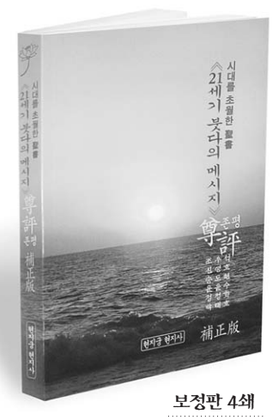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어감!!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불교와 문화가 만났다

3월 24일, 동명불원 불교문화아카데미 개강

사람 사는 모습이 곧 문화다. 일상 속에 품고 있는 모습이 나 자신이며 그 속에서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살아간다. 불교문화란 무엇일까? 부산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은 "신심(信心)이 없는 아름다움은 단지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 불교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수행을 통해 신심으로 불교문화를 접해야 불교를 제대로 알고 참 행복을 찾으며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3월 24일부터 수행과 불교문화를 아우르는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강해 불자들을 초청한다. 올해 열리는 불교문화아카데미는 기존에 실시하던 수행 프로그램에 문화 강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불교문화를 알고 일상 속에 더욱 깊이 불교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과 문화를 접목시켰다.

"불교문화아카데미가 필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를 발견해 삶을 풍요롭게 향유하고 불교를 통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전 공부와 참회 기도를 통해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불교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불교문화를 통해 불자들은 더욱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일반인들은 문화를 통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산 스님이 불교문화아카데미를 여는 이유다.

동명불원에서 개최하는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수행과 문화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즉, 불교 수행을 통해 알찬 내면을 가꾸고 문화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여 궁극으로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동명불원은 고심 끝에 수행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엮는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한 것이다.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심도 깊은 경전강의가 포함된 수행 프로그램을 비롯해, 불교회화 사찰음식 등의 문화 프로그램, 초심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초교리반으로 분야를 나눠 강의를 구성했다.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금강경반' '기초교리반' '108 참회기도 정진'이 마련된다. 불교문화 강좌는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과 '혜현 스님의 불화이야기'가 각각 5개 주제로 진행된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는 사찰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으로 인해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강의다. '혜현 스님의 불화이야기'는 참가자들이 직접 불화를 그리며 불교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기본 붓 잡는 법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실습뿐 아니라 사찰 탱화 및 벽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수업 시간도 있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는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108참회기도는 하안거 결제 전까지 매일 오전 5시와 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나머지 강좌의 강의기간은 6개월이다. <금강경>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7시, 혜현 스님의 불화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마련된다. 불교문화아카데미는 앞으로 불교문화 답사반이나 참선반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추가로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재식은 3월 24일 오후 2시 동명불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051)626-4337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동국대 학생에게 2500만원 전달

8일, 석암장학회 제67기 장학금 수여식



동국대 재학생 15명이 3월 8일 석암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고 있다.

불자인재 양성에 주력해 온 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는 3월 8일 동국대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67번째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석암장학회 이사장 정련 스님은 "장학금이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일회성 장학금이 아닌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진실한 불자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암장학회는 인재양성과 종립학교 동국대의 발전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8일과 9일 이틀간 내원정사에서 실시하는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내원정사 산하의 복지기관 및 재활병원,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고 내원정사는 지원자에 한해 취업의 기회도 부여한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석암장학회의 후원을 받게된다. 하성미 기자

"기도하는 아버지는 행복한 가정의 중심"

의령 유학사 제2차 108예참기도 입재

아버지란 이름은 가정의 든든한 거목(巨木)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정을 이끄는 진실한 힘이 되며 정신적 기반이 된다. 아버지들의 수행을 돕고 가정과 일상 가운데 수행의 향기가 묻어 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로 의령 유학사(주지 원담)가 '제2회 108예참기도'를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00여 명의 거사들이 참여했던 108예참기도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열기를 이어 제2회 108예참기도 입재식을 4월 6일 오전 10시 유학사 극락전에서 봉행한다. 프로그램은 직장을 다니는 거사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유학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후 주지스님의 점검과 지도하에 가정에서 100일 동안 예불과 기도, 108배 수행을 이어간다. 회향은 100일후 연비와 수계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입재법회에는 실상사 학감 법인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또한 가정에서 혼자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학사 본존불 사진과 독송집을 무료로 나눠주며 원만한 회향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담 스님은 "가정에 불심의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좋은 아버지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574-2882 하성미 기자

초발심자 위한 신행학교

홍법사, '숲속의 신행학교' 열어

기초 교리부터 신행을 익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법사(주지 심산)가 숲속의 신행학교를 열었다. 홍법사 숲속의 신행학교 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사찰이지만 정원이 아름다워 마치 숲속과 같은 홍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을 맺길 바란다"며 "초심자들에게 알맞은 신행학교"라고 소개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조계종 신도 교재 <불교입문>으로 직접 강의한다. 수업은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되며 수업 기간은 3개월이다. 접수 마감 3월 31일. (051)508-0345 하성미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대각사 대각불교청년회

청년불교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

봄 정취가 물씬 묻어난다.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신수흥)가 위치해있는 부산 남포동의 저자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매무새도 가벼워 보인다. 우리나라 제일의 항도 부산의 중심인 남포동에서 청년포교의 요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청년신행단체 대각불교청년회.

"저희 청년회가 이번에 30년 맞이 생일잔치를 해요. 부산에서 30년 역사를 가진 불교청년단체는 저희들뿐일걸요!" 신수흥 회장의 자랑이 대단하다. 그리고 청년회원들은 '대각 30년, 그 열정을 위한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29주년 기념법회 준비에 한창이었다.



1979년 창립, 2000여 불자배출
국수공양봉사활동으로 대통령상

그동안 침체되었던 불교청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 창립법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보편적인 법요식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페이스페인팅, 한지공예, 네일아트 등 전문 기술을 갖춘 회원들의 지도로 이뤄지는 식전 프로그램과 함께 1부 기념법요식에 이어, 2부 행사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대중 문화공연으로 기획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소속인 대각불교청년회는 1979년 창립한 불교단체로 그동안 무려 20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을 배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포교의 산실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조직적 위상이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만 되면 30여 명의 회원이 법회에 참석해 정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각불교청년회는 활발한 포교활동과 함께 법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과거에는 성우원, 천마재활원 등의 장애인 재활시설과 국군통합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1990년도인 18년 전부터 용두산 공원에서 시작된 무료급식 '국수공양'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국수공양은 용두산 공원서 소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노숙자들에게 국수를 삶아 한 끼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매월 국수공양을 하는 날만 되면 회원들이 가족이나 자식 손을 잡고 삼삼오오 대각사에 모여서 직접 다시마를 끓이고 국수도 삶고 양념도 장만한 답니다." 대각사 경내 한 켠에 있는 가마솥을 가리키며 봉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희용 불자가 설명해 준다. 과연 600명분의 국수를 삶아내는 큰 가마솥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동안 대각불교청년회는 이 국수공양봉사활동으로 대통령상을 비롯해, 봉사대축제 부산시장상, 관내 구청장상 등을 휩쓸어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절 대각사, 근대 한국불교 태동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절에서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답게, 대각불교청년회 회원들은 오늘도 우리 불교의 나은 미래를 이끌어내고자 포교의 전선인 광복동 거리에서 홍보 포스터와 전단을 나누고 있다. (051)245-8781

오세룡 부산지사장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3월 12일 ~ 5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 암자 · 토굴 및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할인하여 드리며, 작은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원리 :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 전기료가 들지않는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문주등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0,0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60cm 220,000 → 150,000
태양광 정원등(3) 150cm 130,0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4) 103cm 200,000 → 140,000
태양광 정원등(5) 83cm 220,000 → 150,000
태양광 문주등 50cm 100,000 → 70,000

태양광 벽등

100,000 70,000
50,000 46,000
50,000 46,000
50,000 42,000
50,000 42,000

태양광 잔디등(小)

90cm 80,000 → 55,000
90cm 80,000 → 55,000
88cm 50,000 → 42,000
53cm 55,000 → 33,000
31cm 50,000 → 40,000

다용도 태양광 랜턴



1. 전원없는 토굴/암자에 전등용으로 사용
2. 손전등으로 사용 3. 휴대용이. 이동용이
4. 디카/CDJ/라디오/MP3등 AA SIZE 밧데리가 장착되는 제품 사용가능

100,000 → 70,000

* 사은품은 태양광스탠드로서 3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드립니다.

태양광 데크등

50cm 65,000 → 50,000

30만이상고객께 드리는 사은품

코스모스환보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대우테크노 A동 402호 TEL 032)670-8998,8268 / FAX 032)670-8368 http://www.cosmoshuanbo.com •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

화재 '조기경보'로 문화재 지킨다

전북, 시스템 개발 계획…군산시, 매뉴얼 마련

연기 감지 센서가 소방 상황실로 자동으로 알려줘
2010년까지 소화전 설치와 산불 피해 예방 마련

숭례문 소실 후 지난 2월 27일 도내 175점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일제조사를 마친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3월 10일 도내 목조문화재의 화재 경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재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다.

화재 조기경보 시스템은 목조문화재에 부착된 연기 감지센서가 화재시 소방본부 상황실로 화재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라북도는 시스템 개발 후 문화재청 등과 협조해 도내 220개 목조문화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현재 42점 문화재에만 설치된 소화전을 2010년까지 9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억원을 들여 문화재 주위의 잡목을 불에 강한 동백나무 등으로 대체해 산림 내 문화재 39점에 대한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섰다.

전라북도 산하 군산시도 목조문화재 보호 열기가 뜨겁다. 군산시는 목재문화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소방 훈련을 통한 '목재문화재 화재진압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3월 5일 나포면에 소재한 불주사를 시작으로 7일 서수면 상주사, 10일 옥구읍 옥구향교, 12일 소룡동 은적사 등 총 4회 걸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 중인 군산소방서는 합동 소방훈련 후 방화대책회의 등을 열어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방화대책회의에는 문화재 전문위원, 군산시청 공무원, 자위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목조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 소방관들이 3월7일 전북도 유형문화재 37호 상주사 대웅전의 산불대비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佛法 전해"

지역교도소 · 군부대 · 복지단체에 봉사활동
어려운이들 행복 누리도록 하는게 불자의 도리

봄이 훌쩍 다가와 따사로운 햇볕을 쏟아내고 있는 이른 봄, 정읍 일광사를 찾았다. 정읍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구미산 입구에 자리 잡은 일광사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 이름 모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승천 스님이 있다.



승천 스님은 포교에 남다른 열정과 원력을 갖고 20여년간 전주 교도소와 군법당 청소년 법회 등을 운영했다.

스님은 "포교는 출가자 혼자만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한다"는 스님의 교도소 교화활동은 법회 진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블우수용자 생활지원,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 후원, 수용자 자매결연 등 다양한 교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도소를 찾을 때마다 불교용품과 교화방송용 TV · VTR 등 기자재도 기증한 스님은 수용자 교화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 결과 승천 스님은 교도소 교화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교정대상 본상인 '자비상'을 수상했다.

전북 불교대학에 교수로 출강하는 스님은 정읍 경찰서 경승, 정읍 검찰청 교화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0년에는 정읍 지역 스님들과 함께 육군 105연대 법당도 건립한 스님의 활동은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천 스님은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포교를 수행방편 삼다보니 오늘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스님은 "불우청소년 선도 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복지관 지원,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활동 등 현재 활동을 그치지 않겠다"며 사회 봉사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 장학금 수여

하키선수 김희수 학생 선발

조계종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지도법사 청학, 지부장 이용희)는 하키 선수인 김희수 학생(광주일고 2학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체육인불자회 광주지부는 불자 체육인 발굴 및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3월 10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지도법사 청학 스님은 "김희수 학생은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과 운동(하키)을 병행해왔다"며 장학생 선발 이유를 밝혔다.

김희수 학생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및 최우수선수상 수상하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했다.



청학 스님이 김희수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봄 함께 맞아요"…능인회 군산교도소 법회



능인회의 교도소법회에서 김동학 포교사가 재소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북 익산지역 포교사들 모임인 능인회(회장 최학성)는 3월 12일 군산교도소 법당에서 새봄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불자 재소자 등 100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김동확 포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재소기간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참회기도 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익산 능인회는 매월 군산교도소 법회를 봉행하며 불자 재소자들에게 생활용품과 간식등을 보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동국사 번와불사 고불식 봉행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지정된 군산 동국사(주지 종상) 대웅전(등록문화재 64호)의 번와(기와를 새로 얹음) 불사가 시작됐다. 회주 재훈 스님과 동국사 사부대중 300여명은 3월 10일 대웅전에서 번와불사 고불식을 봉행해 대웅전 번와불사가 불보살님의 가피와 호법신장님들의 외호 속에 원만 회향하기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 창종 31주년 기원대법회 행

시방법계에 두루하신 삼보님께 지심정례 하옵고,
대덕 큰스님과 각계의 내빈께 합장예의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은 성원에 힘입어 창종 3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 안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사부대중을 모신 가운데 봉행코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 정 : 영산 일공 (靈山 一空)
부종정 : 유념 법신, 천호 천호
원 로 원 : 송산, 선명, 신수, 성인
승정원장 : 체운
봉행위원장 : 원정 성관(圓正 性觀)
봉행위원 : 체의, 평신, 진허, 해안, 혜광, 해송, 선덕, 체명,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송운, 대천
준비위원 : 보정, 정안, 진운, 혜민, 각우, 도경, 혜명, 해운, 진호, 오산

일 시 : 불기 2552년(2008)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17 캐피탈호텔 (대연회장)
연락처 : 02)853-0531~2 팩스 : 02)853-0533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제28세 주지 경담스님 진산식 및
조실 혜운 큰스님 · 회주 금용 큰스님 추대식에 대한 감사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2008년 3월 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주지스님 취임식 및
조실 · 회주스님 추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큰 스님들과, 기관장님들
신도여러분 그리고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암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2년 3월 5일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담 합장
연락처 061)754-5247, 5953

불교문화재연구소

'전남·충북 지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쾌거

3월 11일, 사찰문화재 등 18건 보물 지정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을 다니며 알려져 있지 않던 유물을 찾아 역사적 ·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고 불교문화재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 이하 연구소) 산하 유적조사팀과 문화재조사팀 30여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 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사찰 소장 문화재를 실사중이다. 연구소는 2002년 강원, 2003년 전북, 2004년 대전 · 충남지역을 실사했다. 그 중 2005년 전남 · 충북지역 실사 후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 15점이 3월 11일 보물로 지정됐다.

홍병화 팀장(문화재조사팀)은 "2002~2004년까지의 조사 후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다. 이번 15점의 보물 지정부터 일제조사와 문화재 승격 및 지정을 연관시키기로 했다"고 말해 2005년 이전 작업에서도 많은 불교문화재가 발굴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음을 시사했다. 홍 팀장은 "일제조사는 전국사찰 소장 문화재의 실사 성격이 짙다. 문화재 선정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 교계 인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일제조사 결과 보물지정이 이어지고 있음은 틀림없다"면서 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극찬한다.

연구소는 2006년 경북 남부, 2007년 경북 북부 지역 실사에 이어 2008년에는 해인사, 쌍계사를 중심으로한 경남 서부 지역을, 2009년에는 통도사, 범어사 중심의 경남 동부 지역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서울 ·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을 실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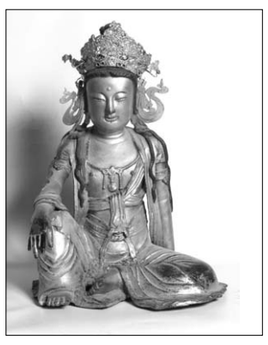
문화재청이 "앞으로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서 발견되는 중요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일제조사에 교계의 기대가 크다.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보물 제1555호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동종.



보물 제1547호 해남 대흥사 금동 관음보살좌상.

> "수준 높고 단아한 멋 있는 조각 작품들
> 회화 우리나라 유일 33사 조사도 포함
> 보존상태 좋고 예술성 뛰어난 동종"

보물 지정된 15건은 무엇?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고려후기, 보물 제1544호)'은 현재까지 알려진 건칠불(乾漆佛)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해 고려후기 불교조각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고려말~조선초, 보물 제1545호)'도 심향사 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은 지역에서 발견 · 조성된 건칠불로 건칠기법의 전승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예로 평가된다.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14세기, 보물 제1546호)'은 조형적으로 우수해 여말선초 불교조각 · 건축 · 공예 · 회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단아한 멋이 일품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조선전기, 보물 제1547호)', 삼신불 도상이 특이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1636년, 보물 제1548호)', 17세기 전라도 지역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1624년, 보물 제1549호)'과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28~1644년, 보물 제1550호)' 등 7점의 불교조각이 보물로 지정됐다.

불교 회화로는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을 보여주는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1653년, 보물 제1551호)',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승 색민(色旻)의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1764년, 보물 제1552호)', 색민의 스승 의겸(儀謙)의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1736년, 보물 제1553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33사 조사도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1753년, 보물 제1554호)' 등 4점이 지정됐다.

김용암(金龍岩)이 주성한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 동종(1644년, 보물 제1555호)', 김애립(金愛立) 등이 주성한 '여수 흥국사 강희 4년명 동종(1665년, 보물 제1556호)' 및 '고흥 능가사 강희 37년명 동종(1698년, 보물 제1557호)'과 김상립(金尙立) 일가가 제작한 '순천 선암사 강희 39년명 동종(1700년, 보물 제1558호)' 등도 지정됐다. 이들 동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장인이 제작한 종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연기가 분명해 공예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평이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등 3건도 보물지정 돼

한편 문화재청은 3월 11일, 관방지도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 제9~10, <묘법연화경> 권 제1~2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학연구' 제18호 발간

2007년 '불교학과 인접학문의 소통' 주제 학술 논문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 제18호가 발간됐다. 이번 학술지에는 2007년 '불교학과 인접학문의 소통'을 주제로 열렸던 추계학술발표회 논문 4편과 투고논문 8편 등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게재논문> 김형효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전환기의 철학과 불교사상', 윤원철 교수(서울대) '불교학과 종교학',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한국불교와 현대적 사회제도의 만남', 우희종 교수(서울대) '복잡계 이론으로 본 생명과 깨달음의 구조', 황금순(홍익대 대학원 석사)씨 '낙산설화와 고려수월관음도, 보타산 관음도량',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불교',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일상예불의 역사적 변용', 정암 스님(동국대 강사) '4남 8자의 순서에 관한 고찰', 이봉순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대일경>의 보살사상', 정진일 연구원(독일 괫팅겐불교산스크리트사전 편찬소) '구나발타라역 <잡아함경>에 보이는 번역상의 문제점', 김양순(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씨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사십팔원', 이혜숙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문제' 등. (게재순)

조동섭 기자

원효 무애춤 '깨달음의 사회화' 방편

도각 스님, '예술심리치료연구' 제3권 발표



무애춤 공연중인 도각 스님.

소성거사(小姓居士)라는 이름으로 세속의 옷을 입고 무애라는 표주박을 두드리며,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춤을 췄던 인물, 첫 새벽을 뜻하는 이름만큼 한국불교 및 세계철학사상사에 새벽을 연 큰 별 원효 대사의 무애춤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원효무애춤, 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를 발표한 이는 도각 스님(원효무애춤명상보존회 회장)이다.

도각 스님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향하던 원효 대사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희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것이 무애춤의 태동"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원효 대사의 춤에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무애사상이 녹아있다고 분석했다. 도각 스님은 일심을 체(体)로, 화쟁을 상(相)으로, 무애를 용(用)으로 나누고, '무애선' '무애차' '무애춤'의 삼무애로 원효의 사상과 명상수행 정리한 스님은 "무애춤이 통합의 학을 위한 표현예술심리치료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10)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www.keastwest.or.kr

연기 중심으로 한 동서양 문학 사상의 비교연구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한일동, 이하 학회)는 1997년 7월 창립됐다. 동서양의 문학과 사상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다. 영문학을 비롯한 서양문학, 철학, 종교학, 국문학, 중문학, 일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들 300여명이 모여 동양의 연기를 서양간의 관계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 2회 발간되는 학회지 <동서비교문학저널>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논문 게재는 동양사상과 동양의 작품을 서양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순수 동양사상에 관한 연구결과물도 게재한다. 정기학술발표회는 춘계와 추계 연 2회 개최한다.

2001년 전재성 박사(빠알리성전협회)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발표하는 등 다수의 학자들이 불교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2008년 춘계 학술대회는 5월 31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예정이며, 4월 30일까지 논문원고를 접수받는다. bkwon88@hanmail.net

조동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제 670호 '우리 학회는'中 <가산불교대사림> 제10권은 2008년 상반기 중 발간예정입니다.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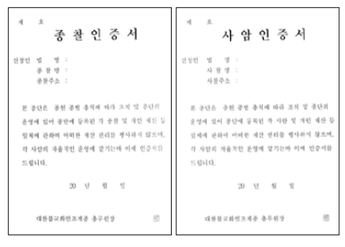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선상용왕재 및
고혼천도 수륙대재

대한불교 조동종에서 수륙재 및 중국 보상사 부처님 불치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스님들뿐만아니라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바랍니다.

◈ 여 행 지 : **석도 – 연태 – 제남 – 태산 – 곡부 – 문상 – 유방**
◈ 출발일자 : **불기 2552년 3월 24일**(음 2월 17일) **월요일 ~ 3월 29일(토요일) 까지**
◈ 출발시간 및 장소 : **인천 제 2여객터미널 로비집결 오후 3시**
◈ 주 최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 동 참 금 : **1인당 60만원** (영가천도 한분당 1만원)

(주) 풍 경 여 행 사
문의 02)2091-0408 / Fax 02)951-0480

일 주 문



불교역사 문화탐방
대원사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은 3월 22일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과 함께 우리문화의 원류인 불교역사 문화 탐방을 떠난다.(062)383-3538



나를 찾아가는 3000배 정진법회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3월 15~22일 룸비니유치원 법당에서 '나를 찾아가는 3000배 발심 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653-1572



치과진료버스 무사운영 기원법회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 구자선 단장은 3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이동치과진료버스 무사운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태안 기름제거 봉사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3월 27일 오전 7시 여성불자들과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떠난다. 접수는 20일까지.(02)722-2101



경부운하 구간 답사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은 3월 22일 오전 8시부터 경부운하 구간 답사 '한강의 숨겨진 유산을 찾아서'를 진행한다.(02)745-5813

77세 '세계 지붕에' 오른다

네팔인 셰르찬씨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 예정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아 에베레스트에 오릅니다. 한국도 남 · 북이 형제로 하나된 나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희수(喜壽)를 맞은 77세 네팔인 민 바하두르 셰르찬씨가 5월 중순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

한국-네팔 프렌드쉽 협회(회장 수경)의 도움으로 방한한 셰르찬씨는 1948년부터 5년간 영국군 용병(구르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복무했다. 이후 네팔로 돌아와 사과농사를 짓던 그는 1960년 스위스 원정대를 따라 다왈라기리(해발 8167m) 등정에 셰르파(길잡이)로 참여하면서 히말라야에 오르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네팔을 동서로 20일간 208km를 완주했고, 이후 네팔 북부 193km를 9일 동안 횡단하는 기록도 세웠다. 2006년 9월 나야강가(해발 5844m)를 산소통 없이 등정하는 등 평소에도 산행을 쉬지 않고 노익장을 과시하던 그다. 그런 셰르찬씨지만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에베레스트에 오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국 네팔의 분쟁으로 이웃들이 고통 겪는게 가슴 아팠다"는 그는 "노인도 젊은이 못지않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평화



메세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셰르찬씨의 에베레스트 등정과 세계평화를 향한 서원에는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 모았다. '2008년 77세 네팔 노인의 에베레스트 등정(SECEE)' 프로젝트가 결성돼 램 진다지 구룽 회장(네팔-말레이시아 문화협회)과 난다 바하두르 싱 교수(네팔 트리부반대) 등이 실무와 후원을 맡아 후원금을 모았다. 2004년 8시간 10분 만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최단시간 등정 기록을 갖고 있는 펨바 도르제씨도 등정팀의 리더로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밤 라와띠 운영위원장(한국-네팔 프렌드쉽 협회)이 후원을 돕는다. 라와띠 위원장은 "에베레스트 등정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화계사 신도회 등에서 도움을 줬고, 한국에 있는 네팔인들도 작게나마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기록은 일본인 야나기사와 카츠스케(71세)가 2007년 세운 것으로, 셰르찬씨가 5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면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돼 기네스북에 남게 된다. 셰르찬씨는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에베레스트 정상에 후원자 명단을 남길 예정이다. 세계 최고 높이의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나면 그는 무엇을 할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지 않냐"며 웃음을 보인 셰르찬씨는, "후원금을 모아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이웃을 돕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02)986-2857, www.mteverest2008.org.np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4-479971 (예금주 BOGATI)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조계종 부동산관리 자문위원 윤천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12일 종단 부동산관리 자문위원에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009년 12월 11일까지다. 윤천수 위원은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감정평가사 불자회 회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연꽃마을에 생필품 보시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원장 원해)는 3월 6일 법흥사 예천 연꽃마을 (주지 정안) 을 방문, 의류 1200여점 쌀 120kg 생필품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 · 입학식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제9기 졸업식 및 10기 입학식을 3월 8일 부산불교회관 4층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 이사장 지현 스님, 학장 정여 스님, 이사 심산 스님 및 졸업생 55명과 입학생 56명,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모든 사부대중의 울력과 부처님의 가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힘과 열정을 다해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상은 졸업자 중 문영걸씨가 수상했다. 하성미 기자

조동종 산행회 모임



지난 1월에 결성된 대한불교조동종 산행회는 3월 4일 故 부종정열 반추모대제를 지내고 울산종무원장 청담 스님을 산행회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대구시 대명동 혜광사(선원장 진일 스님)에서 발대식을 위한 간부 모임을 가졌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정안 스님



신임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에 정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중앙승가대 이사장)은 3월 11일 정안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순천 송광사에서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안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중앙승가대 교무국장, 도서관 사서국장, 전산교육원국장, 총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가평 보원사 불사도감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해찬 前총리 운암기념사업회장 추대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3월 12일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제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사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기념사업회 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前 총리는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운암 김성숙(1898~1969) 선생은 봉선사 스님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국가보훈처가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내게 각별한 의미…신행활동에 최선"

청와대불자회 김병국 신임회장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적 인사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 불자들의 신행단체인 '청불회' 신임 회장에 김병국(49)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3월 12일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불교에 대해서는 '가방 끈이 짧은' 불자이지만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심(信心)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청불회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인 김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미국 내 한반도전문가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명은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에게 받은 정천(淨川).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불자회의 틀이 잡히는 대로 같이 신행활동을 펼쳐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김영국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은 "부처님오신날 전인



4월 중순이나 말쯤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 내에 박재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은혜 제1부대변인 등 불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감투 욕심은 별로 없지만, 청불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로 청불회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예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교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시정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불자들과 불교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탤런트 한지민 나눔의집에 성금



사진제공=MBC

MBC드라마 '이산'에 출연 중인 탤런트 한지민씨가 3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한씨는 故 문필기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린 7일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나눔의집에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한씨가 출연했던 KBS 2TV드라마 '경성스캔들'의 팬들도 9일 나눔의집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역사관 견학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만불회 중앙승가대 장학금 전달

영천 만불사가 설립한 재단법인 만불회(이사장 학성)는 2008년부터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월 10일 1학기 장학금을 중앙승가대에 전달했다. 장학금 규모는 매 학기 500만원, 년 1천만 원이다. 조동섭 기자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 및 사암등록을 환영합니다

※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받지 않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ㅁ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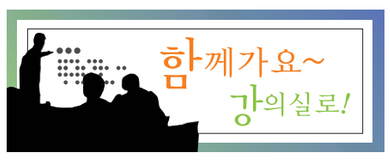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리는 '하늘의 자손' 잃어버린 정체성 찾자



참여불교 리더스포럼

미래의 나라 고구려와 광개토태왕의 리더십

강사 : 윤명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해양문화연구소장)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buddha21.org)
일시 : 2008년 3월 4일
장소 : 만해 NGO교육센터 대교육장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말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간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또한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

한 시대의 위인이란 시대의 의지를 나타내고, 그 의지를 전하며 완성하는 인간을 말한다. 그의 행위는 그 시대의 원천이고 본질이다. 그는 곧 자신의 시대를 실현한다. 대한해협을 뗏목으로 탐험하기도 했던 불굴의 도전가 윤명철 교수(동국대 교양교육원)는 우리에게 광개토태왕 비전을 제안한다.

그가 주장하는 광개토태왕의 리더십 이론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청사진이다. 윤 교수의 역사 재해석은 우리를 잃어버린 미래의 나라로 인도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과 사회의 청정한 변화와 봉사와 회향의 삶을 지향하는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이다. '비영리, 비정부, 비제도적(비종단)' 성격의 단체로 지난 1999년 3월 28일 창립하였다. 2008년 현재 재가연대는 1000여명의 개인회원과 45개의 단체회원을 둔 한국의 재가불자 네트워크로 운영 중이다. 참여불교리더스포럼 2008년 강좌는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21세기는 인류가 가꾸어온 역사의 대지에서 가장 큰 격변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는 인류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면서 아마추어 미래학자입니다. 큰 스케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합니다. 이제 곧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가 인류 역사의 격동기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 테크놀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동아시아 연방 공동체가 결성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 질서는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 의식의 항해사는 항해의 목적과 목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우리의 역사에서 그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부조리한 시대를 거치며 말살되고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잃어버린 존재의 복원 이유는 극명합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의 제시를 위해 그들을 환생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인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세기 말의 국제환경은 오늘날 동북아 정세와 유사합니다. 고구려는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지중해의 중핵에 위치합니다. 동해와 남해 그리고 황해와 동중국해 전체를 연결시킨 해륙 네트워크의 허브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최고의 철 생산지인 안시성을 장악했던 태왕에게 주목합니다.

경제정책에서도 성공했던 태왕은 현재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시가 마주하는 압록강 하구에 해양 물류망을 형성했습니다. 압록강은 만주에서 황해로 나가는 출구이며 황해에서 만주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압록강 하구는 고구려의 생명선과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략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좀 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참여한다면, 이 지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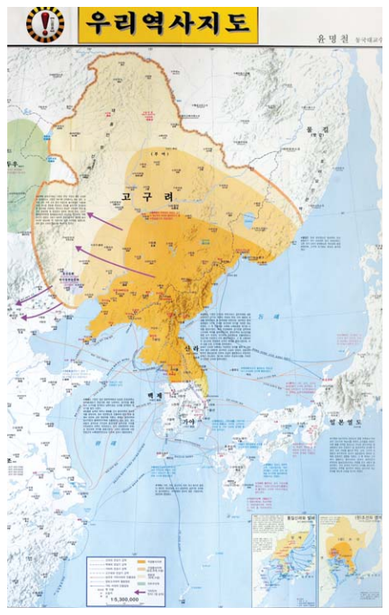
> "문화적 조화 통해 '동방문명' 창조
> 전략적 거점확보 거대한 네트워크 구성"

태왕이 심혈을 기울인 동아지중해 중핵정책의 백미는 경기만의 점령과 운영입니다. 경기만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략지구입니다. 한반도 중부의 모든 강들과 이어지는 해륙교통의 거점입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지중해 남북연근해 항로의 중간지점입니다. 태왕은 범경기만을 허브로 삼아 교역의 거점 생산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큰 나라의 완성은 강한 정치군사력과 뛰어난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도 문화의 왜곡과 혼란이 원인입니다. 고구려는 여러 종류의 문화가 섞인 지중해적 환경을 지녔습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영토 안에서 색다른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된 복합적인 역사 공간이었습니다. 태왕은 제국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종족과 문화를 잘 조화시켰습니다. 참으로 이시대의 고민과 많이 닮았습니다. 현재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혼란스러운 자의식을 겪는 우리들이 해답을 찾는데 태왕은 모범 답안이 됩니다. 고구려인들은 전체를 관장하고 연결시켜주는 핵심으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의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추모의 후예인 태왕이 천신과 수신의 직손이라는 천명을 통해 고구려가 하늘의 뜻으로 선택된 종족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에서 정치적인 자신감이 생겼고 이데올로기는 통일됐습니다. 더 나아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조선정통론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양한 문명과 문화들이 공존하던 시대. 태왕은 이 모든 현상을 수용하여 보편성을 획득하며 중국 문명이나 북방문명과 다른 동방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공존을 통한 상호 발전의 통로와 터의 제공은 생동감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서로 공존을 모색하는 지향점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태왕의 이름 담덕은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를 들여온 큰아버지 소수림왕이 지어준 것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이름과 같이 태왕의 목표는 동아시아의 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지중해적 성격에 국제질서의 미묘함과 시대정신을 담아 나라 발전의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동서남북에 걸친 정복 활동과 대륙 남부와 한반도 중부 이북 등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황해 중부 이북, 동해 중부 이북의 영해를 확보했습니다. 태왕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동만과 경기만 등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질서의 축을 세우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자국 중심의 거대한 망(네트워크)을 구성합니다.<그림>



MBC '느낌표'와 공동 제작한 윤명철 교수의 우리역사 지도

태왕은 장구한 우리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가장 멋진 나라로 만든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를 성공한 리더로 만든 내적, 외적인 힘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태왕의 충만한 정신력은 내가 바로 내 삶과 일의 주체임을 자각한 것에서 나옵니다. 이런 고민과 과제는 현대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식하고 받아들인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해 구체화시키는가. 태왕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방의 거센 물결을 수용하면서도 자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정체성 확립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가 그 증거입니다. '고구려의 임금과 백성은 하늘과 땅의 자식이다.' 하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극명한 자의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식과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고구려가 700년 동안 동아시아의 위대한 나라로 존재한 힘이 자의식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21세기는 문화와 정신의 시대임을 강조합니다. 고구려를 통해 현재를 바라봅시다. 나라모델, 정책모델, 인물모델. 잃어버린 우리의 미래를 광개토태왕에게서 찾아야합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세계로 가는 '한국불교'

해외불교칼럼



1986년 뉴욕주립대학에 한국학과 현판이 걸렸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박성배 교수 그 다음 한복차림은 소리꾼 임진택. <사진제공=박성배교수·혜안출판사>

오늘날 불교는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티베트불교가 미국 전법의 선두주자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단기간에 엄청난 저변을 형성했다. 이는 티베트불교와 국제정황이 서로 잘 맞아떨어진 상생연분이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인 견제, 즉 미국이 북하면 주권침해와 인권문제 등을 들먹여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데 있어 티베트는 꽤 쓸만한 카드이며, 그 덕분에 티베트불교는 일종의 반대급부적인 전법 상 혜택을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게다가 일반미국인들의 약소국 티베트에 대한 연민, 그리고 히말라야산맥과 티베트고원의 오지에 숨겨진 '이상향'이란 막연한 신비감도 적잖게 작용한다.

그래서 미국의 불교관련 학자들 중 잰 내티어 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일과성 및 전법 한계성을 우려하며, 성급한 이들은 달라이라마의 사후에 미국불교의 침체를 속단하기도 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 동남아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집단이민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간 태국, 베트남불교 등은 아직 초기도입단계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불교의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 각자 견해차가 있겠으나, 국제전법에 있어 우리는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제라도 잘 나아가주길 염원하던 터에, 얼마 전 우리 한국불교의 역사적 저력을 새삼 일깨우는 기쁜 소식에 접했다.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불교학센터는 철학, 종교, 역사를 망라한 한국고전의 시리즈발간을 담당할 수석편집장을 17일까지 공개 초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동 센터에서 기획 출판하는 한국고전들은 대부분 한국불교의 한문 경전 및 문헌들이다. 세계적인 불교석학들이 공동번역에 참여할 이 프로젝트의 편집장은 동 센터의 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한국 인재가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던 중 문득 <원각경(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의 영역본이 떠올랐다. '한국불교의 참선지침'란 부제로 1999년 뉴욕주립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된 그 책을 번역한 분은 놀랍게도 찰스 뮐러라는 미국인으로 일본의 도요가쿠엔 대학의 교수다.

뮐러 교수는 숭유배불정책의 서릿발 가운데 한국불교를 지킨 기화 선사께서 시원스런 주해를 달아 엮어낸 <원각경>의 한문 원전을 자신의 정교한 해설을 덧붙여 영역했다.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경제학교수가 보내준 그 책을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새롭다. 사실상 그 역작의 산파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한국인 박성배 박사였기 때문이다. 193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그는 시골서당에서 유학을 배우고 대흥사에서 수행했으며, 동국대 교수를 거쳐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부임한 그는 1986년부터 한국학과장 및 한국학연구소장으로 일한다. 그는 후학지도 및 저술활동과 함께 1993년 뉴욕 주립대학교 출판부의 한국학연구총서 책임편집인, 1997년 원효전서의 영역기획편집장을 맡았다.

뮐러 교수는 책머리에 박성배 교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일을 마침에 있어 가장 감사를 드려야할 분은 내가 대학신입생 때부터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줄곧 학구적 불꽃을 지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한국 불교의 거대한 보고로 안내해주신 박성배 은사님이다. 내내 은사님을 모시고 이 고귀한 지식의 영역을 영어상용지역으로 넓혀갈 수 있기 바란다." 이국땅에서 외롭게 정진해 오신 박성배 교수, 그리고 그의 고매한 인품과 학문을 함께 배운 뮐러 교수, 그 두 분은 한길을 가는 미더운 도반이자 멋진 사제지간이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UCLA학보, 뉴욕주립대학 박성배교수 홈페이지 www.sunysb.edu/asianandam/park_sungbae.shtml

페리스힐튼 불교서 자아찾기 노력

미국의 유명 패션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며, 영화배우와 가수를 겸한 만능탤런트인 금년 27세의 패리스 힐튼이 무절제한 파티광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자아를 찾고자 불교의 한 노스님에게 영적 구원을 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그녀는 그 스님과 함께 '채색된 샤먼의 길'이란 책의 독후감을 나누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의 불교전문 서점인 보디 다르마에서 불교의 깨우침과 관련된 서적을 찾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세계적 거대 호텔의 상속자인 그녀가 샤론 스톤, 우마 서먼, 티나 터너, 제니퍼 로페스처럼 할리우드의 메카 스타 보살의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ANI

체코 불자협 사찰건립금 지원 요청

3월 5일자 체코의 체테카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진언종 불자협회는 모라비아주의 수도인 부르노 시에 사찰 신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유럽연합(EU)에 신청했다.

체코 정부에 신앙단체로 공식 등록된 진언종은 최근 들어 특히 브르노 일대에서 그 신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대규모 불교 도서관을 포함한 동 사찰이 완공되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인근 국가들의 청소년과 대학생 및 일반불자들의 공동체로서 동유럽 전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처: CTK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00

"'禪수행' 선원에서만 하나요?"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필 잭슨 ❷

미국 NBA 농구의 대선사인 필 잭슨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선(禪)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가 바른 순서일 듯하다. 사람들은 누군가 선을 수행하면 절이나 선원에 다니는 줄로 지레 짐작한다.

게다가 요즘엔 구두선이란 단어조차 원래의 의미에서 한참 비껴나 행동이 따르지 않은 빈말, 그리고 선문답은 일반상식과 논리에서 벗어난 헛소리쯤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물론 거기엔 불교와 선에 대한 종교적 편견과 거부감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단세포적인 무지의 소치다.

선은 불교용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와 유사한 명상이나 묵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느 절대적인 말씀이나 신 내림을 구하며, 다른 이들은 '나'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그리하여 유일신의 추종자들은 마침내 절대자의 계시를 받았다고 감격하며, 무당들은 신기를 얻었다고 신명을 낸다.

선의 원류 고대힌두신앙으로 유추

교외별전·직지인심 등 표현 다양

그런가하면 불가에선 고요히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때론 되레 생각을 멈추려 애써왔다. 다만 문화 종교적 해석, 그리고 시대적 관념과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바람을 일으켰던 '초월명상(TM)'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속성버전인바, 그저 하루에 두 번씩 이십 분쯤 눈을 감기만 하는 특이한 명상기법이다.

선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자리를 잡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신앙 형태다. 매순간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 삼라만상의 본질을 헤아린다는 것이 선의 사전적 정의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선은 중국에서 비롯하나 그 이전에 선을 중국으로 들여간 이는 보디다르마, 즉 달마 대사다. 중국인이 아닌 그가 6세기 경 인도에서 동쪽으로 건너온 시대적, 지리적 배경을 고려하건데, 선의 원류는 고대힌두신앙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로 명상을 뜻하는 디아나 또는 지아나를 중국어 츠안나(禪那)로 음역한 뒤 나를 생략한 것이다. 소림사의 선 수행 중 하나인 쿵푸(功夫)의 권법과 봉술 등도 당시 보디다르마를 따라온 쿠투바리사이, 실랄밤와 같은 인도전통무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디다르마가 사거(死去)한 뒤 중국의 역대 선맥은 후이커, 성찬, 다오신, 홍런, 후이넝 등으로 이어졌다. 동아시아에서 선의 주요개념은 전법, 즉 지고지순의 지혜인 다르마를 널리 펼치는 것이다. 이는 세존의 열반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가르침의 승계를 뜻한다.

선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면 그 특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불법을 불경 이외의 방식으로 전한다 하여 '교외별전', 영어권에선 'A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he Buddhist Scriptures'라 한다.

그리고 말과 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여 '불립문자', 영어로는 'No dependence upon words or letters'라 한다. 또한 마음에 곧바로 내리 꽂힌다 하여 '직지인심', 또는 'Direct pointing to the human mind'라고도 한다.

그리고 본성을 헤아려 붓다의 모습에 이른다 하여 '견성성불', 곧 'Seeing one's own nature and attaining Buddhahood'라 일컫는다. 또는 스승이 없이 홀로 깨우치는 길이라 하여 '무사독오', 곧 'Independently enlightened without a teacher'라고도 한다.

신라 후기 학승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선은 고려 때 크게 꽃을 피우고 지눌 스님은 순수한 선 수행을 위해 송광사를 창건한다. 그 이래 조계종은 한국의 선불교를 대표하며 혜근, 태고, 기화, 휴정 등 역대 대선사들을 통해 지금에 이른다. 하면 오늘날 수많은 미국인들은 언제 어떻게 선과 접하게 됐을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e heard you are enlightened perfect. Is that true?

자네가 득도 정각에 이르렀다니 그게 참말인가

The Master solemnly announced at last that a young monk had reached an advanced state of enlightenment. The news caused some stir. Some of the monks went to see the young monk. "We heard you are enlightened perfect. Is that true?" they asked. "Maybe." he replied. "And how do you feel now?" "Damn it ! as miserable as ever," murmured the monk with heavily sleepy eyes.

선사께서 마침내 한 젊은 학승이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엄숙히 선언하자, 여기저기서 술렁댔다. 그의 문도들이 학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자네가 득도 정각에 이르렀다니 그게 참말인가?" "그런가봐." 그가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떤가?" "젠장! 만날 엉망진창이지 뭐." 그가 잔뜩 졸린 맹한 눈으로 중얼댔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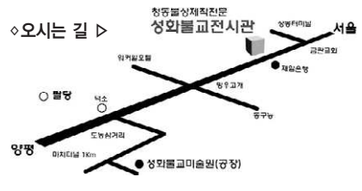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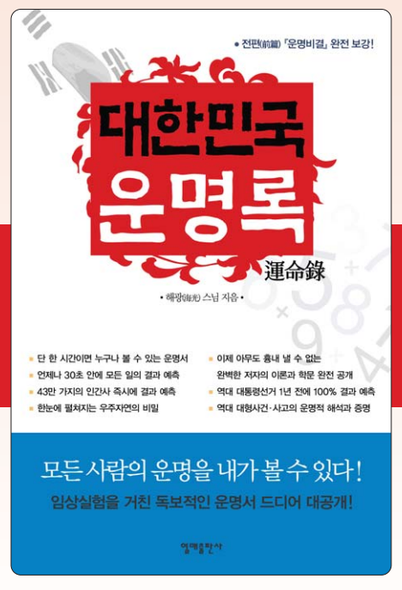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전국대형서점,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 반 상 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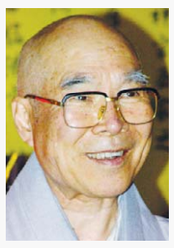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고우 스님께 듣는 선순례의 의미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길 배워요”



중국에 올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10여 년간의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에 의해 사찰이 파손되고 스님들이 환속당해 올곧은 정신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점점 선방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 불교는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간화선의 정신은 중국에서 시작됐으나 계승하고 있는 한국에서 오히려 불교를 깊이 보고 있지요. ‘손가락’이 아닌 ‘달’로써 불교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걱정이 없지는 않아요.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정신을 살려 선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진원지가 되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그 자리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 듣고 보는 이 자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마하반야(摩何般若)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해지고 갈등·대립이 없어집니다. 선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같은 원리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원리가 마하반야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럿이 함께 더불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혼자 행복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생은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천목산이나 경산사 가는 길 보다 훨씬 더 힘들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으며 순례단 중 누구 하나도 “가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도 이처럼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도 ‘즐거울 것이다’고 생각하면 지겨울 것도 싫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유지해나가기 바랍니다.

고우·무비 스님과 함께 떠나는 간화선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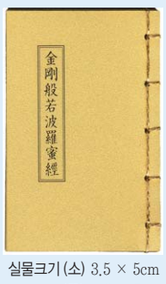
“부처가 발견한 세계는 어떠하기에…”

#길 속에서 길을 찾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그 행복이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찰나적이고 현상적인 행복이라면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것일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원장 허경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선적지 순례길을 열었다. 3월 10일~13일 나흘간 진행된 이번 순례는 한국 간화선 법통의 원류인 대혜종고(大慧宗杲)·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의 선 수행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였다. 前 태백산 각화선원장 고우 스님과 범어사 승가대학장 무비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108인의 순례단이 뒤를 따랐다.

순례단은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시 아육왕사(阿育王寺)·천동사(天童寺)를 시작으로 항저우(恒州)시 천목산(天目山)·고려사(高麗寺)·정자사(淨慈寺)·영은사(靈隱寺), 위항(余杭)시 경산사(徑山寺),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시 천령사(天零寺) 등을 둘러보았다. 이 중 많은 사찰이 중국 문화혁명기간(1966~1976) 동안 없어져 그 원형을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순례단은 두 선사가 걸었던 길 속에서 이미 자신만의 길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이번 순례단을 이끈 고우 스님은 “운문 선사가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 말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부처의 정각(正覺)처럼 시공을 초월해 유효한 것”이라며 “부처가 발견한 세계가 어떠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려 한 것인지 알아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순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12면으로 계속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장엄 소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악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혜·고봉의 터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11면에서 계속

대혜종고-아육왕사, 경산사

대혜종고(1089~1163)는 선(禪)으로도 뛰어났으나 현실도 중시하는 선사였다. 선사의 생존 시기는 북송이 금에 공격받아 남송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었기에 대혜 선사는 선(禪)으로써 사대부를 지도, 현실을 이겨내려 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리는 <서장(書狀)>은 선사가 사대부 및 스님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대혜 선사는 이런 활동때문에 오해를 사 15년간 귀양살이를 한다. 유배에서 풀려나 67세 되던 해 한 사찰의 주지를 맡았는데 이곳이 바로 아육왕사다. '아육'은 인도 '아소카'의 음차다. 여기에는 대혜 선사의 숨결뿐만 아니라 부처님 두골 사리 보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81년 혜달 스님이 창건했고 '아육왕사'라는 이름은 양무제가 하사했다.

대혜 선사 주석 당시, 법문을 듣기 위해 1만이 넘는 대중이 찾아왔을 정도라니 구도자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다. 알고보니 고려 유학승 의통과 의천, 나옹 선사도 참배했다.

대혜 선사는 몰려든 대중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 아마도 '화두(話頭)'이지 않을까. 그저 앉아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잡아 불들어 마음대로 소요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대혜 선사의 생각이었다. 위태로운 시대, 유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실정치 상황 속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생동감 있는 간화선을 주창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대혜 선사와 연관된 또 다른 사찰은 위항시 경산사다. 경산사는 대혜 선사가 46세 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주지를 맡았던 곳이다. 또한 이곳은 고지대 차 재배지역에 위치,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연원이 된 곳이기도 하다. 대혜 선사가 이곳에 있을 때는 험준한 산악 사찰임에도 1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설법을 듣고자 몰려왔다고 한다. 선사는 주지에서 물러난 75세 되던 해 명월당에서 '사는 것도 이러하고 죽는 것도 이러함에 게송을 남기고 남기지 않는 것, 이 무슨 유행인가'라는 말을 남기고 입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얽매임 없이 활달한 선풍을 보여준 대혜 선사를 생각하며 순례단은 경산사에서 잠시 선정에 드는 시간을 가졌다. 참선을 하며 더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사가 남기고 간 이 길 위에 서 있다는 감동이 전율처럼 밀려와서였을 것이다.



이번 순례단의 증명법사 고우(사진 왼쪽)·무비 스님. 순례단은 대혜·고봉 선사의 자취를 좇으며 우리 선지식을 따르는 기쁨을 맛봤다.

#고봉원묘-천목산

고봉(1238~1295) 선사는 그야말로 수행자의 면모를 가졌다. 15세 되던 해 출가한 고봉 선사는 원래 천태학 등의 교학에 먼저 발을 디뎠으나 20세가 되던 해부터 선수행의 길을 걷는다. 젊은 수행자가 '3년 안에 깨치지 못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정진의 길에 들어섰다니 놀라움이 앞선다. 고봉 선사는 단교·설암 선사에게서 화두를 받고 깊이 참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확실히 깨쳤다고 확신할 때까지 참구, 또 참구하던 선사는 결국 천목산으로 향해 정진을 계속한다.

천목산은 고봉 선사가 대중을 피해 들어간 곳이다. '고봉 높은 점 하늘과 비교되지 않고 사관(死關) 험한 점 18지옥과 비교되지 못하네'라는 말이 돌 정도면 고봉 선사의 고고함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된다. 고봉 선사는 토굴의 이름부터 '죽을힘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었던 것이다. 깎아지는 바위 위에서, 그야말로 오갈 수도 없는 곳에서 선사는 15년간 정진한다. 사관 바로 옆에 지어진 사자구(獅子口)에는 고봉 선사가 '철저히 죽어야만 산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한 말이 쓰여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 그가 들어앉은 바위절벽 토굴보다 더 험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으면 불현듯, 깨닫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던 수행자를 떠올리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찾아와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갔어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쇠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서 무너뜨리도다."

확철대오한 면모가 느껴지는 고봉 선사의 게송이다. 이런 고봉의 면모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선요(禪要)>다. 고봉 선사가 깨친 후 20여 년간 설법했던 것을 시자 지정 스님이 기록한 것이다.

중국/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60회 맞은 '명무명인전'

3월 18·19일 오후 7시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무관심 속에서 여여히 한국전통무대의 예술혼을 이끌며 제자리를 지켜온 '한국의 명무명인전'이 60회를 맞았다. 기념 무대는 3월 18·19일 오후 7시 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마련된다.

이 기획은 동국예술기획 대표 박동국씨가 1990년 이후 19년째 힘겹게 지켜오고 있는 순수 전통문화 행사다. 제60회를 맞아 특별히 전통음악 및 춤 분야의 원로에서 중진에 이르는 예인들이 무대에 선다. 특히 70평생 이상을 한국전통무용만을 고집하며 명인명무로 평가받는 권명화(소고춤), 김진홍(무당춤), 최선(호남살풀이춤)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송준영(훈령무), 이춘자(태평무), 엄옥자(원향살풀이춤), 이길주(산조무), 이경화(설장고), 양길순(승무) 등 중견 명인들도 대거 참여한다. 이밖에도 가야금 병창, 피리 독주, 한량무, 춘앵전, 원향살풀이춤 등도 선보인다.

한편 6월 4일 오후 7시 30분에는 전주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로 무대를 옮긴다. 역시 김진홍, 엄옥자, 이경화, 이길주 등이 출연해 동래한량무, 원향 살풀이춤, 승무, 판소리,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온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는 "그동안 명인명무전은 각 분야의 원로급 예능 보유자를 중심으로 준보유자 등 전통 예술인들의 발표 무대를 이끌어 왔다"며 "이번 무대는 한국의 소리와 장단, 춤이 원로와 중진 및 유망주들이 3대를 이뤄 우리 전통의 곰삭은 맛과 향기를 전국 무대 곳곳에 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02)2278-5452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㉛더덕떡



자연산이고 오래된 것 향 강하고 약효 높아
위튼튼 해지고, 남성 정력과 기관지에 좋아

더덕은 향이 강합니다.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가장 짙은 냄새를 풍깁니다. 향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여름 숲속을 걷다 특유의 향을 맡고 더덕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덕을 한방에서는 사삼(沙蔘)이라고 부릅니다. 인삼처럼 약효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덕을 자르면 하얀 진이 나오는데 이 진 속에는 인삼의 약성분인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쓴맛을 내며 각종 약리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산과 오래된 것일수록 향이 강하고 약효도 높다고 합니다. 재배 더덕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 이 때문에 요리로 먹기에는 재배 더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초학적 시각으로 볼 때 더덕은 성미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갖고 있으며 약간 찹니다. 인삼과 달리 찬 성미가 있어 열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몸 안에 부종이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고, 독성 물질을 밖으로 배설해주기도 합니다. 모유분비 촉진역할도 합니다.

고서(古書)에는 더덕이 위를 튼튼하게 하고 남자의 정력을 강화시키며 기관지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전합니다. 더덕을 오래 먹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많을 때 더덕을 먹으면 배농작용을 하며, 혈압을 낮춰주고 부인과 질환으로 젖의 분비가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유선염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혈당은 오히려 높이는 작용을 해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덕과 찹쌀을 이용해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떡 재료 : 더덕, 꿀, 찹쌀

만드는 법

①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살살 두드려 부드럽게 한 후 꿀에 재워둔다.
② 찹쌀은 하루 전에 담갔다가 소금으로 밑간을 해 가루로 빻아둔다.
③ 꿀에 재워뒀던 더덕에 찹쌀가루를 손으로 쥐듯 잡아 가루가 두둑하게 묻도록 한다.
④ 더덕을 시루에 쪄서 담아 낸다.



차재배 최고 조건…영국인이 '가치' 활용

茶와 불교를 찾아 떠난 스리랑카 ③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

스리랑카의 차밭 정경은 아름답고 눈부시다. 햇살에 빛나는 연두색 찻잎들은 스리랑카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들이다.

캔디에서 5번 국도를 따라 누와라엘리아를 지난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도착한 칸다폴라의 라부켈리에 티(tea)센터. 1841년부터 차를 만들어 온 곳이란다. 지금은 외지에서 온 관광객을 위해 '마크우드'표의 홍차를 맛보고 살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인 티룸(tea room)에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신다. 한쪽 벽을 채우고 있는 장식용 도자기, 진열대, 티 테이블이 중후하다. 이곳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좋은 홍차를 맛볼 수 있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그러고 보니 맑고 투명한 붉은 오렌지빛 홍차의 기품은 분명 물의 영향인 듯하다. 서늘하고 맑은 공기와 어우러진 홍차의 향미는 고혹적이며 감미롭다. 홍차의 색감이 주는 산뜻한 느낌 때문인지 오랜 여정의 나른한 권태로움이 씻은 듯 사라졌다.

창밖으로 3층 건물이지만 조금 높아 보이는 정형적인 차 공장이 보인다. 흰색으로 벽을 칠했다. 지금은 옛날 차 공장의 시설물을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운영한다. 관광객들에게 홍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설로 일종의 홍차 홍보를 위한 교육장인 셈이다. 수년 전만 해도 차를 따는 타밀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던 기계, 향기로운 차향이 가득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 화석이 된 느낌이다. 대개 고지대에 위치한 차 공장들은 천혜의 자연 조건인 맑고 서늘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셈이다. 특히 칸다폴라에 있는 티팩트리호텔은 거의 해발 20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어 몇 년 전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주관하는 단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물이자 명소로 상을 받기도 했다.

이곳의 물이 좋다고 하여 가져간 차를 우려 마셔 보니 암골향의 묵직한 물맛이 홍차와 어울린다. 이곳에서 나는 차는 거의 청차 계통의 희한한 홍차 맛이었는데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었다.

산길을 따라 갈수록 2월인데도 제법 쌀쌀해 한기를 느낄 지경이다. 이곳 사람들은 털모자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차를 달려도 그림 같은 차밭이 이어지며 체계적인 차밭의 관리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할만하다. 물론 영국 사람들이 남겨놓은 차밭 관리의 노하우이겠지만 어느 한 곳 빈틈이 없다. 천혜의 자연은 차밭의 조건으로 완벽하다. 부럽고 보기 좋은 차밭들이다.

드문드문 긴 장대를 들고 차를 따는 타밀의 여인들은 이마에 끈을 둘러 차를 담은 무거운 바구니를 지탱한다. 늙은 타밀 여인의 이마에는 깊이 팬 끈 자국이 천형(天刑)처럼 남아 있다. 차밭 사이로 레인하우스(일명 줄집)라는 이들의 숙소가 보인다. 대략 1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단위의 마을은 영국인들이 만든 티 플랜테이션이다. 학교와 병원, 유아원, 생필품 가게가 있고 가옥과 학교, 복지시설은 무료란다. 결국 이곳에 이주해 온 타밀 사람들은 일생동안 차밭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들의 생계 수단은 오직 차를 따는 일이다. 하루 20kg내외의 차를 따며, 대략 500루피 가량 노임을 받는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000원 정도. 결국 찻잎을 따는 양에 따라 노임을 받는 것이니 옛날 영국 사람들이 만든 고난도의 인력 착취 방법이 지금도 시행되는 것이다. 이들이 이주 당시부터 살았던 레인하우스에는 주소와 번지가 없다 물론 주민등록증도 없다. 우편물은 농장에서 수집하여 일일이 나누어 주었단다. 이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근자에 타밀 사람들의 거주지에도 번지를 부여하고 우체국도 생겼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밀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가난하다.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마시기도 힘겹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

> "농촌지역선 생강즙 혹은 야자각설탕 도시는 홍차에 우유와 설탕넣어 즐겨"

특히 하푸탈을 지나 스리야칸다를 가는 길에 만난 타밀여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씹는담배 탓인지 다 빠져 휑한 붉은 치아, 앙상한 몸으로 무거운 찻잎을 이고 가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일행 중 누군가가 100루피를 주었다. 이 보시가 그녀에게 순간의 기쁨을 주었겠지만 애잔한 마음은 여전하다. 홍차를 마시는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더없는 즐거움이며 여유겠지만 그 이면엔 소외된 계층의 고단한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스리야칸다를 가는 길에 간간히 흰 양말과 반바지를 입고 모자 쓴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이 전형적인 차 농장의 감독이다. 옛날 영국 사람들이 차 농장을 감독할 때 흰 색의 반바지와 양말을 신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담배 파이프를 물고 차밭을 둘러보았단다. 지금도 이 차림새와 모습이 정형화되어 감독임을 알리는 유니폼이 된 것이다. 처음 보는 우리는 다소 생경한 느낌이 들어 웃음이 나왔다.

한편 스리랑카 차 농장의 운영권은 1948년 스리랑카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영국인 농장주들이 경영했으나 60년대 국유화됐으며, 70년대 말 쯤 민간인에 매각했다. 지금은 일부 정부 소유의 차밭과 민간인 소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스리랑카산 홍차는 대개 실론, 담불라, 우바, 누와라엘리야에서 나며 지역에 따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우바 지역에서 나는 홍차는 탄닌 성분이 많고 강한 향, 환한 방향(芳香)으로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다. 누와라엘리야지역 홍차는 맑은 오렌지빛으로 우아하고 감미롭다. 특히 스리야칸다 지역의 차에서는 암골향이 강하고 높은 고지역이기 때문에 홍차지만 녹차에 가까운 특별한 맛과 향을 지녔다.

홍차의 등급은 어린잎일수록 고급차이며, 만든 찻잎을 체로 걸러서 일정한 크기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농촌 지역에서는 생강즙을 홍차에 넣거나 홍차를 마시는 사이사이에 자그리(야자 각설탕)를 깨물어 먹는다. 하지만 도시인들은 홍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 달작지근하게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

결국 홍차는 영국인들이 만든 새로운 차의 한 형태인 셈이다. 스리랑카의 차나무는 영국인들에 의해 개량되고 관리된 것이다. 예로부터 차나무가 자생했다지만 스리랑카 사람 중 누구도 차를 응용했던 흔적은 희박하다. 이곳이 차 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명소임을 알아본 것은 영국 사람들이었다.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자는 새로운 문명을 연다. 스리랑카 홍차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끝>

> "물과 홍차가 최고로 잘 어우러져 그림같은 차밭관리는 세계 최고"



영국 풍의 아름다운 찻집 라부켈리에 티센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차를 즐긴다.



타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레인하우스는 차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차를 수매하는 타밀 여인들. 고산지라 옷이 두껍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4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 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하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VIP 여행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각원사 /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HANATOUR 전문판매점 THECOME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詩僧이 정리한 삼국시대 詩僧들의 詩

한국의 시승



펴낸곳 | 불교문예
집역인 | 로담스님
A5 / 253쪽 / 값12,000원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본마음은 참나' 등 펴내

"즐기면 상쾌하고 유쾌해"

월호 스님 인터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각신앙(自覺信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각에 이르는 길에는 자력과 타력 두 가지가 있지요. 참선입문서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불광 刊>가 자력수행을 담은 것이라면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운주사 刊>과 <본마음 참나, 운주사 刊>는 타력신앙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월호 스님이 잇따라 불서 세 권을 펴내 화제다. <당신이…>는 자신의 전공인 선(禪) 관련 책이고, 나머지 두 권은 <천수경> 등 기도 관련 서적이다.

이 책들 모두 1년 동안 불교방송에서 라디오 전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다. 참선과 경전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며 불교 공부하는 재미가 새록새록 생겨난다고 좋아하는 이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와 요즘 보람을 느낀다고 월호 스님은 귀띔한다.

"참선은 어려운 고행이 아닙니다. 참선을 즐기면서 해야 상쾌하고 유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참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먼저 깨야 합니다. 참선은 수행자들이 선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일을 하거나 자신의 본래 성품, 즉 본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리고 참선은 '극락에 간들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즐거워집니다."

월호 스님이 이번에 쓴 책도 스님의 설명처럼 참선을 쉽게 할 수 있는 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외국인 스님을 지도하기 위해 만든 참선에 대한 설명과, 경허 스님의 <참선곡> 풀이, 자신의 선방체험, 방송에서 '참선 백문백답' 시간에 한 문답 내용 등을 모았다.

스님은 이 책에서 참선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참선하면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아야 할 것은 나의 허물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의 허물이니, 이것이 진정 참선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외에도 <천수경> 강의를 녹취해 정리한 <아발로키테슈와라, …>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통해 쉽게 해설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쉽고 재미있게 쓰여 졌다고 수준이 낮거나 부실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용어 설명이나 교리 해설 등은 놓치지 않았다. 특히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범어 부분은 팔리어 원문에 의한 띄어쓰기나 표기, 해설 등을 꼼꼼히 챙겼다.

스님은 이 책에서 <천수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앞은 다라니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신묘장구대다라니> 마지막은 참회와 발원이다.

<본마음 참나>는 월호 스님이 국사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행불수행 수련회'의 교재이다. 행불, 삼귀의, 천수경, 108참회 발원문, 금강반야바라밀경, 참선곡 등을 정리해 놓았다.

월호 스님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우선돼야 부처님의 가피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법륜을 굴리겠다는 발원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보살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선과 기도를 한다면 자각에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4월말부터는 방송을 통해 <금강경> 강의를 할 계획이라는 월호 스님은 3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1주년 기념법회 및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참선하면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아야 할 것은 나의 허물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하늘과 땅과 다른 사람의 허물이니, 이것이 진정 참선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4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8	불자생활백서	윤창화,고명석	민족사
9	서장	전재강 역주	운주사
10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사찰에 가면 생기는 궁금증 모두 여기에



사찰, 어느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글 사진|조계종 출판사 펴냄|1만2000원

꼭 불자가 아니라도 봄기운이 만연하면서 사찰을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사찰엔 그 역사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가 가득하다. 특히 '천년 고찰'이라 이름 붙은 절들은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 구석구석까지 소위 '문화재' 박물관들이다. 하지만 절마다 불상 크기, 모습, 자세 등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이름도 제 각각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가진 불상을 구분하기가 녹록지 않다. 하지만 모신 장소, 손모양 등의 의미를 알면 불상의 이름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일단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면 그곳의 주존부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처님, '대적광전'이나 '비로전'에는 비로자나부처,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에는 아미타부처, '약사전'이나 '만월보전'에는 약사여래부처, '용화전'이나 '미륵전'에는 미륵부처, '관음전'이나 '원통전'에는 관세음보살, '명부전'이나 '지장전'에는 지장보살 등이 모셔져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원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예가 법주사와 개심사다. 법주사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나부처를 비롯한 삼신불, 서산 개심사 대웅전에는 아미타부처가 있다.

이처럼 이 책은 '한겨레 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센터와 불교대학 등에서 강의하는 저자가 50여 전국 사찰을 직접 돌아다니며 불교문화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이다. 도대체 석탑은 왜 세워졌고, 부도란 무엇이며, 석등은 왜 만들었을까 등 사찰에 가면 품을 수 있는 궁금증들이 다채롭게 설명돼 있다.

저자는 "사찰에 가면 건축 양식보다도 처음 그 사찰을 지었던 마음과 사찰 안 곳곳에 담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보라"며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집이기에 그 어느 건물보다도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스님들이 공부하는 현재진행형 도량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실질적 수행의 안내서



행복한 화엄경
정엄 스님 지음|나라연 펴냄|1만5000원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한없이 크고 넓으며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부처님, 비로자나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화엄경>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여러 경전이 집합된 경전인 만큼 사상적으로도 복합적이고 광대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화엄경>은 중앙아시아와 서역지역을 중심으로 유포돼 읽혀지던 것을 모아서 편찬했다. 그래서 <화엄경>은 40권본, 80권본, 장역화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행복한 화엄경>은 바로 이와 같은 광대함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쓰여 졌다. 따라서 화엄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안내서로서 충분한 기능은 물론, 핵심을 조목조목 짚었다는 점이 가장 큰 덕목이다. 그동안 <화엄경>하면 너무 광대해 겁부터 먹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소제목부터가 쉽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깨달음이 품은 세상' '부처님 나타나시는 모습' '화엄경이 본 세계와 우주' '부처님의 거룩한 네 가지 진리' 등에서 보듯이 이 책은 <화엄경>을 즐겁게 읽게 함과 동시에 독자를 실질적 수행의 길까지 안내해 준다.

김주일 기자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54염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원 불멸의 평생염주





▷특별선물: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부처님 보석인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를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꼭 갖고 싶은 인도전설의 염주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108주로 한것은 108번뇌의 끊음을 뜻하는 것이고 염주를 2등분씩 줄여 54주 염주 27주 염주, 단주와 합장주로 만든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뜻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상인및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것을 지금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분, 중대한 문제 해결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소원이 이루워진다는 전설의 염주다. 수입후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천연백수정 54주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할 분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 불심사에서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천연백수정 54주염주와 가족친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선물로 보시하고 있다. 염주알 크기11mm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존상인 법륜을 매듭으로 넣어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소원 성취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 9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친 비방!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위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8,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불교의 기본’ 다지는 책 만들기 매진

정우서적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출판사를 차리겠다”는 말을 달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 꿈은 그대로 묻혀버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잠시 접혀 있던 그의 꿈은 블교계 안에서 펼쳐졌다. 좋은 불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서원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정우서적’을 세우면서부터다.

햇살이 맑은 3월 10일, 서울 종로 한 건물에 위치한 정우서적을 찾았다. 정확히는 정우서적 이성운 사장을 찾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불교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사장은 1992년부터 공직생활을 접고 출판사를 시작했다며 간단하게 “뜻이 있고 하고 싶어서”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서’라는 단어의 정체성이 뭐라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이 진정으로 하고 싶던 말이 시작된 셈이다.

“불서란 과연 종교의 하위개념인지, 불교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불자가 아닌 사람이 출판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불서는 불교를 담은 책이죠. 불교인에 의해, 불교의 가치와 이념을 드러내야 불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론적이지만 그만큼 신선하기도 했다. 요즘처럼 변주가 환영받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원론을 지키는 것이 특이하니 말이다.

이 사장이 만들어낸 정우서적 책들을 살펴봤다. <의식 및 불자신행서><국한문대역경서><사경시리즈><경전시리즈> 등 ‘정통파’ 불교서적과 이론교양서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 사장이 의식 · 의례집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뜻밖이다.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어떻게든 일반 독자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책 출판에 신경 쓰기 마련인데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런 도서를 주로 만들어내는 이 사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생활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 사장은 ‘언어’문제를 들고 나왔다. 번역도 번역이지만 이 사장이 더욱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우리 말’ 자체다.

“우리말로 옮겨 놓아도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말 문법에 맞게 정확한 문장을 쓰면 불서 어렵다고 안 읽을 사람은 적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사장이 딱딱한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한시도 즐겨 쓴다.

“불교에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 많은데요. 게송을 하나 보아도 문학적이지요. 게다가 초기 경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내재해 있습니까.”

이런 그의 생각은 이 사장이 운영하는 ‘정우피아’ 블로그(blog.naver.com/jabidj)에서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의 출판 신념, 새 책에 대한 꼼꼼한 리뷰는 물론 신행이야기, 습작 시들까지 다양하게 꾸몄다. 마치 사랑방 같은 분위기다.

다시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현재 불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느냐고. 지금 불서 시장의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고.

“불교출판인들이 책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다. 불교도 시대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불교출판계도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태성 교수와 범어(梵語)를 다시 보는 <범어실담입문>을, 김호성 교수와는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를 출간 준비 중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쓰기 경전 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현학적 해석은 지양하고 원형을 최대한 유지시킨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다. <법화경>을 비롯한 10권의 경전이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올 예정이다. 독송 위주의 경전에서 탈피해 온전히 뜻을 안길 수 있는 경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 “불교의 가치 개발해 다양하게 드러내야 누구나 읽고 싶어하고 가치있는 책이 목표”



이 사장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는 전문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한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사장은 불서 만드는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산다. 출판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그에게 걸림이 아니다.

철학이 없고 불교적 가치가 없는 출판물은 불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이성언 사장. 그러나 그와 이야기하다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순수한 열정,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출판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다보면 슬그머니, 이 사장의 그 ‘고집’을 편들고 싶어진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초발심자경문)
원순 역해|도서출판 답게|2004년

부산 금정중학교 이석언 교법사

“처음 먹은 마음대로 살자”

이 원고를 쓰며 반성부터 해본다. 불서를 많이 읽어야 불자인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부터 불서를 열심히 읽겠다 다짐하며 읽은 불서 중 감명 깊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발심자경문>은 불문에 처음 든 스님들이 학습하는 교재이며 기본으로 배우는 지침서다. 그러나 정독해보면 일반 불자들이 읽어도 스님 못지않게 혜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미 · 사미니들이 수도기간 동안 익혀야 할 간단한 계와 언행, 어른 앞에서 하는 몸가짐, 식사하고 잠자는 일 등에 관한 교육, 그리고 발심 · 경책 등을 돈독히 하는 글을 모아놓았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이 세간에서 실천하며 마음에 새길만한 유용한 말씀들이 많다.



불교학생회 활동 때 책 접해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 배워

내용을 살펴보면 ‘계초심학인문’은 지눌 스님이 조계산에서 수선사를 창건하면서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켰을 때 저술 한 것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불교의 삼학(三學)인 계정혜(戒定慧)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조금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경구가 아닌가 싶다.

‘발심수행장’은 원효 스님이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으로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주 내용이다. 특히 ‘부서진 수레는 짐을 실을 수 없고 늙은 몸은 닦을 수 없는 것이니 발심수행이 급하고 급하다’고 한 구절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인생은 덧없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자경문’은 고려 후기 야운(野雲) 스님이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해 쓴 책이지만 수행하는 스님들을 경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경이란 신삼(身三), 구사(口四), 의삼(意三)이라 하여 몸으로는 살생 · 도둑질 · 간음을, 입으로는 거짓말 · 독설 · 이간질 · 모략중상을, 뜻으로는 탐냄 · 시기 · 질투 · 분노 · 그릇된 주장 등을 한 자신을 참회하고, 깨닫는 그날까지 잘못된 모든 행위를 돌이켜 자비한 마음으로 뭇 생명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며, 깨끗한 행을 닦고 마음을 살펴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다.

처음 이 <초발심자경문>을 접한 것은 경주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던 무렵이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자신을 닦는데 참 좋은 종교임을 느끼게 된 것은 물론 이후 나의 삶에도 큰 지침이 되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 때 대학에서 방송언론을 할 때나 1990년대 이후 종립학교 교사로, 교법사로 불자들을 육성하면서나 초심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초발심자경문>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항상 처음 먹은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제 모두가 초심의 마음불자로서 바른 신심을 내고, 정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초발심자경문>을 다시 읽어 봄이 어떨까.

많은 스님이나 불교학자들이 이 책을 역해하고 있지만 2004년 송광사 원순 스님이 쓰신 <눈먼 거북이가 천년 만에>는 제목 자체가 <열반경>에 나오는 ‘맹구우목(盲龜遇木)’에서 따온 말로, ‘큰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삼천년에 한번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들러 가는데 이때 바다 위에 떠있는 나무를 만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듯 불법을 만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이제 만났으니 한번 신명나게 공부해보자’는 의미가 들어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2기)

1. 교육안내
- ○ 개강일자 : 2008년 4월 7일 (월) 오후 3시(목탁 지참)
-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4. 신청방법 : 전화접수(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사진, 등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중요한 부분은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지도함
·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필름

당뇨,혈압등 성인병에 좋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뽕잎차는 야생 뽕나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생 뽕나무는 비료나 퇴비를 멀리하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깊고 그윽합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산삼 뿌리와도 같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차입니다.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음용하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침, 가래를 내리고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는 며칠만 마셔도 변화가 나타나며 혈압을 떨어뜨리며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한번만 마셔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오줌이 많아지고, 자주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의 고소한 뒷맛은 오래도록 기분을 상큼하게 합니다. 우선 맛이 좋고, 나중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맛과 향이 뛰어난 차입니다. 몸에 좋은 차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선원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주지스님, 일반 신도님들께서 몸이 냉하거나 당뇨,체질순환이 잘 안되시는 경우 장복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오장 육부가 좋아지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 인사를 하시는데도 정성 가득한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드려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초심차(初心茶)**
뽕잎을 쪄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번. 이것이 구증구포 바로 금강선원의 초심차 입니다.
선원주변에 맑은 공기와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난 뽕나무로 부터 채취된 뽕잎을 재료로 하고 있어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뽕잎을 씻고 찌는 물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다시 한번 자화육각수로 정화하여 사용하므로 차를 우려냈을 때 더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발심차(發心茶) 첫 서리맞은 뽕잎차**
11월초에 첫 서리맞은 뽕잎을 채취하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을 떨어뜨려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www.ggzen.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⑥

불법 의심하면 올바른 지견잃어

三疑法 世人多執本心 於所受法 不能卽信 敬心受行 苦心生猶豫 卽法不染心 何以故 疑障之義 如偈中說

세 번째는 자기가 받고 지니고 있는 법을 의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선입견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 뒤에 받은 법에 대해선 신심을 내지 못한다.

비유하면 지관법문을 닦을 경우 지관법문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닦는다 해도 생사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이와 같이 머뭇거리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염불하는 사람이 염불법문은 사후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할 수 있는지, 아미타불을 볼 수 있는지 의심하거나, 이것이 마군이의 설법인지, 아니면 여래가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진실한 법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되면 수행하는 길을 수시로 바꾸어 아침저녁 의혹과 무명의 어두움으로 진실한 마음이 덮어져 버리게 된다. 이는 마치 큰 바다와 같이 광대한 부처님 주변에 앉아 있으면서도 목이 말라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이 어찌 용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의심을 하면 진실한 불법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 여래의 위없는 열반의 이치를 영원히 잃게 된다.

如人在岐路 疑惑無所趣
諸法實相中 疑亦復如是
疑故不勤求 諸法之實相
見疑從癡生 惡中之惡者
善不善法中 生死及涅槃
定實眞有法 於中莫生疑
汝苦懷疑惑 死王獄吏縛
如師子搏鹿 不能得解脫
在世雖有疑 當隨喜善法
譬如觀岐道 利好者應逐
佛法之中 信爲能人
若無信者 雖在佛法
終無所獲 如是種種因緣
覺知疑過 當急棄之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다. 기로는 여러 갈래로 교차하는 길을 말한다. 길이 많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의혹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야 할 곳을 결정짓지 못한다. 제법실상 가운데서 의심하는 것도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제법이라 하는 것은 일체 대승 · 소승 · 범부 · 성인 · 편교(偏敎) · 원교(圓敎) · 돈교(頓敎) · 점교(漸敎) · 권교(權敎) · 실교(實敎) 등을 가리키고, 실상은 바로 무상(無相)이며 진여실상이라고도 한다.

진실한 법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 수행 장애
의심이 생기더라도 선법 따라 수희찬탄해야

실상무상을 공가중 삼제(空假中 三諦)에 대비해 보면 실상이 따로의 모습이 없는 것은 '공'의 의미에 해당되고, 실상이 상아님이 없는 것은 '가'의 의미에 해당되며, 실상이 무상이면서 상아님이 없는 것은 '중'의 의미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은 공가중 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공가중 삼제는 일체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는 일체법의 있는 그대로가 진여의 모습이고, 일체법의 있는 그대로가 실상의 모습임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진여실상의 모습으로서의 제법이다"라고 하였다. 가령 진여실상으로서의 제법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게 되면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여래가 설법하신 팔만사천법문은 낱낱이 진여실상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법이며 진여의 원통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불법은 바다와 같아 무량무변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법에 대해 의혹을 일으키게 되면 실상의 이치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의심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또 다시 말하기를 "의심 때문에 제법실상의 이치를 부지런히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일체 삼계 내에 견혹과 사혹 등 모든 것이 전도된 어리석음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해본다면 불법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악법가운데서 또다시 모든 악법을 일으킴은 물론 미혹을 따라서 또 다른 미혹을 불러 다시 악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선법과 불선법이 있는데, 선법은 열반이고 불선법은 생사다. 그런데 생사가운데서 다시 생사를 일으키는 것을 악법 가운데 악법이라고 한다. 생사는 미혹의 법이고, 열반은 깨달음의 법이다.

그러나 모든 법 가운데에는 단정코 진실하고 정직한 법이 존재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생사법 가운데 열반법이 있고, 번뇌법 가운데 보리법이 있고, 생멸법 가운데 불생멸법이 있다.

이는 마치 파도와 물이 동시에 젖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만일 이처럼 치우침 없는 이치에 대해서 항상 의혹을 품으면 진실한 성품만 덮여져 버릴 뿐이다.

이와 같은 모든 무리들은 염라대왕의 지휘를 받는 저승사자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빠져나올 길이 없다. 우리들은 무시이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혹의 뿌리가 너무 깊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구하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실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비록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선법을 따라서 수희찬탄하고, 의혹의 인연 때문에 반야의 오묘한 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비유하면 여러 갈래의 기로에서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끝내는 어느 길이 올바른지 어느 길이 틀렸는지, 이 점을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여 오직 이롭고 좋은 쪽으로 가야만 하는 경우와 같다.

이는 요컨대 자기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의혹심을 내지 말고 즉시 용맹하게 정진하면서 전진해야 함을 말한다.

불교법문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최후의 처소에 까지 추궁해보면 일실(一實)로 귀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방편문이 많다고 하지만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두 가지 길이 없음을 말한다. 전일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나의 문으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 망상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침내 자기의 집에 도달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 가운데선 신심으로 들어가고 지혜로서 생사를 건너야 하는데, 만일 신심이 없다면 비록 불법 가운데 있다 해도 불법과는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불법에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은 불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갖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의심과 후회의 허물은 반드시 깨닫고 급히 버려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2)수온(受蘊)

인식대상경계로서의 색온이 식자증분(識自證分)을 의지한 상분(相分)경계로 떠오르면, 자증분을 의지해서 동시에 일어난 견분(見分)이 그 대상인 상분색경에 대해 반드시 상대적인 감촉을 일으키면서 그 대상의 역순경(逆順境)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좋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관적인 분별심이 상대적으로 눈앞에 떠오른 대상상분색경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를 '수(受)'라고 합니다.

'수온'은 세간에서 말하는 지정의(知情意)했을 때의 정(情)적인 방면, 즉 감정작용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견분 분별심과 인식대상인 상분 색경이 상대적으로 부딪치면, 그 대상에 대해 세 가지 감정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삼수(三受)라고 합니다. 이는 대상색 경계를 괴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고수(苦受), 반대로 그 경계를 즐거운 감정으로 수용하는 낙수(樂受), 괴로움과 즐거움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무감각의 상태인 사수(捨守)입니다.

견분분별심과 상분색경 부딪치면
고·낙·사수 세가지 감정일어나

대상에 대하여 이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의 형태가 일어나면 감정에 따른 의식의 의지적인 행위조작, 즉 업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감정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인양 집착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탐욕의 업(業), 즉 변계소집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수온의 특성입니다. 이는 상분과 견분의 의타기성을 실재성으로 착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령 즐거움의 경계로 떠오른 대상 상분색법에 대해선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 탐욕심이 일어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얻고 난 후 다시 탐욕심을 일으켜 어떤 외부적 상황이 부딪쳐 온다 해도 그것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심을 일으킵니다.

중생들의 이러한 탐욕심은 괴로움 혹은 즐거운 감정의 작용인 수온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정엔 반드시 탐욕을 일으키는 작용이 동시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오욕락의 세상은 한낱 ‘꿈’ 일 뿐이지요”

선지식을 찾아서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부친이 만공 선사에게 계를 받을 만큼 신심깊은 불자 가정에서 자랐다.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강원을 마친 뒤, 범어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30대에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서울 화계사 회주를 맡고 있다.



2월 마지막 날, 봄기운이 완연한 덕숭산(495.2m) 오르는 길은 유난히 산 새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견성암을 거쳐 수덕사 능인선원(정혜사) 밑에 이르자, 만공 스님이 좌선했다는 만공대(滿空臺)에 새겨진 “나가정(那伽定)”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대룡삼매(大龍三昧)라 번역되는 나가정은 부처님의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 선불교 종흥의 모태가 되었던 능인선원에서 안목 높은 수좌들이 용과 같은 자유자재한 삼매를 닦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능인선원에서 석달간 수좌들을 이끌며 함께 정진한 설정 스님은 이번 동안거에는 많은 구참스님들이 동참해 어느 때보다 신심 나는 안거를 보냈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혜인(약천사 회주), 지하(前 중앙종회 의장), 천진(前 통도사 유나) 스님 등 구참스님들이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매년 해제 때마다 구소련의 끼르기스탄에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는 법웅스님은 장좌불와로 정진의 불씨를 지폈지요.”

이번 안거에 동참한 25명의 수좌들은 수행과 보살행을 통해 이(理)와 사(事)가 원융무애한 일승(一乘)보살이 나아갈 길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덕숭총림의 방장 아래 어른인 수좌(首座)로서 안거수행을 이끈 설정 스님 역시,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난 태안해변에서 스님들과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가풍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공부를 해 온 스님은 후학들에게 불조(佛祖)의 가르침에 대한 정견과 확고한 신심, 나도 깨닫고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보살심과 원력, 나를 버리고 모두를 위해 살겠다는 공심(公心)이 있어야 참된 출가생활이 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이 13세부터 지금껏 들고 있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는 금봉 스님이 준 것이다. 이 화두를 들 때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들기 보다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만공 스님이 가르친 참구법이라 한다.

스님은 강원과 선방에서 두루 공부하고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에 나라의 국회의장격인 중앙종회 의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기도 했다. 그야말로 이판과 사판을 넘나들며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몸을 혹사하며 일하고 장년기에 수덕사 주지와 종단 소임 등을 맡으며 과로한 것이 췌장암이란 병을 만들었다. 그 때가 중앙종회 의장 임기가 끝난 1998년이었다.

“병이 걸려 죽을 고비가 오자 선가(禪家)에 살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회가 들었어요. 자존심과 자괴감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아 병이 전생의 과보라는 확신이 든 스님은 참회의 주력수행에 들어갔다. 아픈 몸으로 매일 7~8시간씩 천수다라니와 42수 진언을 외웠다. 진정한 참회와 간절한 주력일념수행은 당시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 기적적으로 완쾌되는 결과를 이뤄냈다.

“병고(病苦)를 극복하는 과정은 공부의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환상이고 꿈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느껴져야,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미국에서 도움을 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2000년, 한국 스님들이 미국 현지에 머물며 적응할 수 있도록 태광사를 창건했다. 숭산 스님이 입적한 뒤, 스님은 국제선원이 있는 화계사 회주 소임을 맡아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과 간화선의 세계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숭산 스님 입적이후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제자들을 보면서 스님은 스승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벽초, 금봉, 원담 스님 등 당대의 고승아래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공부하게 된 것이 더욱 다행스럽다.

“문중의 큰스님들을 모두 존경하지만, 일제하 저잣거리의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 몸을 잊고 중생을 위해 잠신과 쌀을 보시하며 살아가신 수월 스님의 삶을 특히 존경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경허 스님과 수월 스님이 하산하여 마을에서 훈장과 머슴노릇을 하며 산 것은 ‘깨달음의 자취를 완전히 숨기고(和光同塵)’ 저자거리에 들어가 자비의 손을 드리우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의 삶이었다. 중생이 생각하는 진(眞)과 속(俗), 선과 악을 훤출히 벗어난 경계인 것이다.

스님께 재가자를 위한 한 말씀을 청하자 “번뇌를 끌고 살면서도 번뇌를 벗어나 사는 길이 선(禪)이다”고 말한다. “세상의 일과 번뇌 속에서도 순수해지고 괴롭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번뇌와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오욕락의 세상이 꿈임을 깨달아야 해요. 번뇌가 진짜가 아닌 ‘환상임을 깨달으면 꿈을 깬(離幻卽覺)’ 자가 됩니다.”

“세상을 쉽게, 편케 살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보살행을 발원한 스님은,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만 깊이 믿어도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사진=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번뇌를 끌고 살면서도 벗어나 사는 것이 ‘禪’

‘일체유심조’ 도리 깨닫고 긍정적인 삶 누려야

출가생활 53년, 원로의원급의 법랍이 된 스님의 삶은 한국 현대 선종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의 부친인 용희(龍羲) 전병석(田炳石) 거사는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이자 한학자였다. 속세에 있으면 오래 못 산다는 여러 큰스님들의 이야기도 들어오던 터에 스님의 출가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스님이 5세 때 만공 스님이 입적하자, 8년 후 수덕사로 동진출가하게 된다.

평생 선농겸수(禪農兼修)를 실천한 벽초 · 원담 스님으로부터 땀의 소중함과 ‘평상심이 도’임을 배운 스님은 밥하고 빨래하고 차 달이고 채소 키우고, 논을 개간하는 등의 고된 울력을 통해 ‘노동선’을 닦았다. 당시 스님은 워낙 어려서 순수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으며, 수시로 ‘일삼매’에 빠져 잡념이 사라진 맑고 깨끗한 경지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벽초 스님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을 하며 철저한 백장가풍(百丈家風)을 실천했다. 방장에 추대되어도 법단에 올라가 법문한 적이 없었으며, 일체 사적인 소유를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원력과 공심, 위법망구(爲法忘軀)하는 심정이 아니면 어떠한 소임도 맡아서는 안 됨을 배웠다. 사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노선(勞禪)일치의 가풍은 간화선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과 참선이 둘이 아닌 간화선 전통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동 속에서 선(禪)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별 · 망상 없는 평상심(平常心)으로 살 수 있는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 선 아닌 때, 선 아닌 곳이 없다)’이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해요.”

두 은사인 벽초 · 원담 스님이 노동 속에서 평상심이 도(道)인 가르침을 주었다면, 만공 스님의 또 다른 제자인 금봉 스님은 날카로운 선지(禪旨)와 선교일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해 2000년, 한국 스님들이 미국 현지에 머물며 적응할 수 있도록 태광사를 창건했다. 숭산 스님이 입적한 뒤, 스님은 국제선원이 있는 화계사 회주 소임을 맡아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과 간화선의 세계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숭산 스님 입적이후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제자들을 보면서 스님은 스승의 소중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만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은 벽초, 금봉, 원담 스님 등 당대의 고승아래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공부하게 된 것이 더욱 다행스럽다.

“문중의 큰스님들을 모두 존경하지만, 일제하 저잣거리의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 몸을 잊고 중생을 위해 잠신과 쌀을 보시하며 살아가신 수월 스님의 삶을 특히 존경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경허 스님과 수월 스님이 하산하여 마을에서 훈장과 머슴노릇을 하며 산 것은 ‘깨달음의 자취를 완전히 숨기고(和光同塵)’ 저자거리에 들어가 자비의 손을 드리우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의 삶이었다. 중생이 생각하는 진(眞)과 속(俗), 선과 악을 훤출히 벗어난 경계인 것이다.

스님께 재가자를 위한 한 말씀을 청하자 “번뇌를 끌고 살면서도 번뇌를 벗어나 사는 길이 선(禪)이다”고 말한다. “세상의 일과 번뇌 속에서도 순수해지고 괴롭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번뇌와 생사가 끊어진 자리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오욕락의 세상이 꿈임을 깨달아야 해요. 번뇌가 진짜가 아닌 ‘환상임을 깨달으면 꿈을 깬(離幻卽覺)’ 자가 됩니다.”

“세상을 쉽게, 편케 살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보살행을 발원한 스님은, 불자들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만 깊이 믿어도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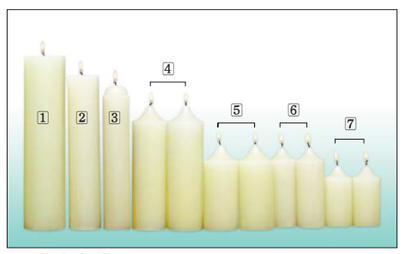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천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M) 양초.net

'단식' 몸과 마음을 비워라

봄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겨우내 움츠린 몸은 마냥 무겁기만 하다. 체중계에 올랐더니 체중도 늘었다. 늘어난 체중을 보니 마음도 무거워졌다. 날도 풀리고 무언가 해보려하지만 무거운 몸과 마음에 금방 의기소침해지기 일쑤다. 새봄, 새출발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이어트와 체질개선을 위한 건강요법, 단식에 대해 알아본다.



체질 개선·활성산소 수치 낮춰 노화예방
요가·참선과 병행하면 마음 치유 효과도

과거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를 호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넘쳐나는 음식 탓에 영양과잉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 과다하게 섭취한 음식은 위장을 비롯한 신체 장기 곳곳에 부담을 주고, 쓰다 남은 에너지는 체내에 노폐물로 쌓여 독으로 남는다. 단식은 일시적으로 영양 공급을 중단해 몸의 부담을 덜고, 신체 기능과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치유법이다.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혈압, 당뇨, 소화기궤양, 간염, 결핵 등 질환자는 절대 주의할 것!

일반적인 단식법은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끊어 몸만을 살피는 수준이지만, 사찰의 단식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원리에서 단식에 요가 명상, 참선 등을 병행해 심신의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양주 육지장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명상 · 단식 · 요가 수련회를 여는 지원스님(육지장사 주지)은 "요즘 사람들의 병은 많이 먹어 생기는 것"이라며 "단식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먹는 습관 자체가 바뀐다. 특히 체내 활성산소가 줄어 노화를 막는 혁명"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단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단식 전 · 후 활성산소 수치를 체크했더니 단식 후 활성산소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체중도 보통 7~8kg씩 감량됐다"며 단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들어 현대인들에게 1년에 1~2회씩 단식할 것을 권한다.

실제 단식에 참여한 이들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해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의 '단식참선 수련회'에 다녀온 고상현 주임(조계종 기획실)은 "단식 초기 2~3일 동안 머리도 아프고 몸이 힘들었지만 3일이 지나니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했다. 직장에 돌아와서도 3일간 단식을 더 했지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고 주임은 "참선과 단식으로 정신적 빈곤과 육체적 풍요에서 온 문제를 동시에 치유했다"는 단식예찬론자다.

단식 경험이 3~4회된다는 자비행(53) 보살(53세)도 주위 사람들에게 단식을 권유하는 케이스. 자비행 보살은 "단식 후 2일째 되는 날까지는 음식을 안먹었다는 생각,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힘들었다. 먹어서 느끼는 것은 마음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스리니 3일을 고비로 배고픔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번 단식을 하면 15일 정도는 거뜬히 해낸다는 보살은 "단식 후 고지혈증 수치도 낮아졌고 10년째 고생하던 만성위염도 나았다. 피부도 고와졌다"며 단식으로 얻은 건강을 자랑했다.

뿐만 아니다. 자비행 보살은 "무엇보다 단식을 하니 참선할 때 집중이 잘됐다"고 말했다. "속을 비우니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져 번뇌가 소멸했다. (먹는) 욕구 하나를 정리하고 나니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해가 아닌 체험으로 다가왔다"는 보살은 단식 후 원망 많던 삶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단식은 어떻게 할까? 보통 단식은 예비단식기(준비기), 본단식기, 보식기간(회복기)을 거친다.

▲예비단식기: 우선 평소 식사량을 줄이며 단식을 준비하는 예비단식 기간이 필요하다. 2~3일간 식사량을 서서히 줄여 마지막 날 저녁 식사량은 평소 먹는 양의 절반으로 줄인다. 전체 식사량을 줄이면서 야채 섭취량은 늘려준다. 커피, 담배 등 자극적인 기호식품은 금물이다.

▲본단식기: 모든 영양공급을 끊는 실제 단식기간이다. 영양공급 중단에 따른 몸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충분한 수분공급으로 탈수가 오지 않도록 한다. 죽염을 푼 물이나, 감잎차 등을 마시기도 한다. 단식 중에는 감정을 고요히 하고, 격한 운동을 삼간다. 스트레칭과 산책, 참선 등으로 몸을 풀어 준다. 개인에 따라 구토 · 어지럼증 · 피부발진 등의 명현 반응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보식기간: 정상 식생활로 돌아오는 준비단계로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간이다. 5일 정도 죽, 미음 등을 조금씩 섭취한다.

제주 원명선원의 단식 프로그램은 특이하게도 예비단식기와 보식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대효 스님의 경험에서 완성된 금강단식은 단식기간 중 따뜻한 물과 죽염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 및 참선을 주로 한다. 대효 스님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바로 단식에 들어가도, 단식 후 바로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단식법이다. 준비기간 및 회복기가 필요 없어 바쁜 현대인들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며 권했다.

양주 육지장사 www.yukjijangsa.org, (031)871-0101

제주 원명선원 www.wseon.com, (064)755-3322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제공: 원명선원 자비행 보살>

단식의 효과는?



- 몸이 가벼워진다.
- 변비가 사라진다.
- 혈액이 맑아진다
- 피부가 좋아진다
- 체질이 개선된다
- 기억력이 증가한다.
- 면역력이 증가한다.

health 건강 칼럼 column

23. 인공수정체

최근 안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많은 분들이 수술 시 통증이나 수술 후 주의사항, 합병증 등을 궁금해 한다. 하지만 정작 눈 속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에 대해 알아본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와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다. 나이가 들어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시력저하의 대표적 질환으로 약물치료는 없고 모든 경우에서 수술로 치료를 한다. 수술방법은 혼탁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백내장 수술은 지난 2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안약으로만 마취하고 수술 시 통증도 거의 없다. 시력 회복 속도도 빨라져 바로 다음날이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이런 백내장 수술 기법과 더불어 인공수정체 역시 꾸준하게 발전해서 지금은 다양한 기능의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후 영구적으로 삽입
기능·재질 따라 맞춤형 선택 가능

초창기 인공수정체는 재질도 문제지만 디자인이 눈 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인공수정체가 각막 뒷면과 닿아 수년 후 각막이식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 후방 인공수정체가 나오면서 인공수정체를 눈 속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때에는 인공수정체가 PMMA라고 하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 안구에 넣기 위해서는 각막을 1/3 이상 넓게 절개해야 했다. 따라서 수술 시간도 길고 시력회복도 2~3개월 이상 걸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 접히는(foldable) 인공수정체가 나오면서 인공수정체를 반으로 접어 눈 속에 삽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백내장 수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오늘날과 같은 수술로 진보했다. 즉 각막을 크게 절개할 필요가 없이 3mm 이하의 작은 절개로 수술할 수가 있게 됐고 눈에 주사를 직접 맞는 마취도 필요 없게 됐으며 심지어는 수술 후에 각막을 봉합할 필요도 없는 무봉합 수술의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더욱 다양한 기능의 인공수정체가 나와 이제는 인공수정체도 개개인에 맞추는 선택의 시대가 됐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수정체는 노안교정 다초점 인공수정체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정해져 있어서 먼 곳을 잘 보이게 하면 근거리는 돋보기 안경을 착용해야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원거리, 근거리 2개가 있어서 돋보기 없이 독서가 가능하다.

눈에서 시신경 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 망막인데 망막 보호기능이 있는 인공수정체도 있다. 대부분의 인공수정체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지만 자외선 못지않게 망막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가시광선 중 청색파장이다. 청색파장과 자외선을 함께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인공수정체는 눈의 노화 과정인 망막변성을 예방한다.

비구면 인공수정체도 있다. 젊은 나이의 눈은 각막-수정체로 이어지는 굴절의 특징이 비구면이라 초점심도도 깊고 빛 번짐도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노화에 의해 점차 비구면의 장점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장점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비구면 인공수정체는 젊고 건강한 수정체와 좀 더 흡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초점, 망막보호, 비구면과 같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렌즈도 나오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수술만 잘되면 그만인 시대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고르는 시대가 됐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 영원한 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 11권 출간!
전 30권의 대장정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특허 10-0806337호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지압 · 동 깔창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운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오늘의 禪語

⑪ 공안(公案)

'깨달음의 문' 열기 위한 관문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교육용 방편을 '공안(公案)'이라고 합니다. 공안은 스승이나 조실이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해 제시하는 일단의 숙제 · 과제 혹은 풀어야 할 관문입니다.

원래 공안(公案)이라는 말은 '공부(公府, 관청)의 안독(案牘, 공문서)'에서 '공(公)'과 '안(案)'만 따온 말입니다. 그 뜻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칙으로 삼아야 할 공식적인 지침서라는 뜻의 행정용어로 '국가의 법령'이나 '관공서의 공문(업무처리 규칙)' '법원의 판례' 등 관청의 문서를 뜻합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판례는 공무원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엄수해야 할 준칙으로서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잃게 되고 부정이 싹트게 됩니다. 또한 기타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정해진 법령이나 수시로 내려 보내는 공문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법령을 준칙으로 삼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도 공안을 준칙으로 삼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 법령(공안, 화두)만 잘 따른다면(참구) 아무 탈 없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안은 무엇보다도 권위와 신뢰성, 절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공안을 참구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공안으로서 믿음과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수행자에게 그 공안은 그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일구월심 참구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회의심이 생긴다면 그 공안(화두)은 더 이상 공안으로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신(神)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듯 화두 역시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참구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조주나 운문 선사의 고사(故事)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부처(진리)냐"고 질문하자 그들은 논리적인 대답 대신 "마른 똥막대기다(乾屎?)" "삼세근(麻三斤)이다" 또는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사실 부처나 진리에 대한 모독적인 말로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궤변으로서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깨달음을 체득한 저명한 선승들이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했을 리 있을까요? 수행자들을 데리고 할 일 없이 재기 발랄한 농담이나 했을까요? 의미 없는 동문서답이나 늘어놓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질문자로 하여금 관념을 타파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말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화두나 공안은 모두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만, 그 말이 진리라는 정도의 절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100년을 참구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성이 유지될 때만 깨달음을 체득하는 공안으로서 핵탄두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깨달음을 얻은 옛 선승들의 언행이나 선문답(법거량, 대화)이 훗날 공안이 된 것입니다. 저명한 선승과 선승 또는 선승과 수행자 사이에 오고간 선문답이나 언구 등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인연설화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오도(悟道)의 역사적 사실로 정착되고, 또 권위와 절대성이 부여되면서 하나의 진리처럼 발전한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이라서 언뜻 보면 콩트나 픽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한 토막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선의 정신과 사상, 교리적 바탕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안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선(禪)의 정신과 선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기이한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선의 논리에서 볼 때 선승들이 주고받는 선문답은 빈틈없는 일정한 기준과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空) · 무집착 · 중도(中道) · 무분별(無分別) · 무차별(無差別) · 불이(不二, 즉 一) · 일체유심조(관념 타파 용도) · 무아(無我) · 무심(無心, 무번뇌심) · 무사(無事, 무번뇌사)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안을 비롯한 선문답 · 선시 · 오도송 · 법거량 등 모든 선어는 여기(공 · 무집착 등)에 맞아야 하고,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문답도 법거량도 오도송도 아닙니다.

공안(話頭)은 모두 1700가지나 됩니다. 이것은 선의 역사서 <전등록>에 실려 있는 선문답의 숫자가 모두 1701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구하는 공안(화두)은 '무(無)' '간시궐(乾屎橛)' 등 약 7~8개가 됩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절대적 믿음·권위 뒷받침돼야 '공안의 위력' 발휘

공안에 대한 권위는 참구하는 자 스스로 부여해야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오온의 공함'을 깨닫다

가족 잃고 떠돌다 부처님 법회 참여

오온 관찰 통해 '내 것' 없음 깨달아

⑪ 빠따짜라

'지계제일' 비구니인 빠따짜라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와 액을 넘어섰다(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고 하는 <반야심경>의 관법(照見: 위빠사나)으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사위성에 사는 부호 상인의 딸이었던 빠따짜라는 성장한 후 머슴과 눈이 맞아 몰래 도망쳐서 인적이 드문 마을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 그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갖게 되었다. 해산날이 다가와 친정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여행 도중에 큰 태풍이 불었다. 남편은 피난처를 짓기 위해 재목과 풀을 구하려고 숲으로 나갔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그녀는 두 아이를 껴안고 땅바닥에 간신히 엎드려 밤을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위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강이 가로 놓여 있었다. 물이 깊어서 그녀는 갓난아기를 강기슭 풀 위에 눕히고 큰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다. 중간쯤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갓난아기를 채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라 아이를 강물 속에 떨어뜨렸고, 그 아이는 급류 속에 휩쓸려 버렸다. 졸지에 남편과 두 아이를 잃은 그녀가 간신히 사위성에 당도해 보니, 친정집은 태풍이 불던 저녁에 무너지고 불이 나서 온 식구가 깔리고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미쳐버린 그녀는 정처 없이 걸어다녔기에 속옷마저도 갈갈이 찢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빠따짜라(천조각을 걸치고 걷는 여자)'라고 불렀고, 절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기원정사에 이르렀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를 막았지만,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다 멀찌기 빠따짜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법회에 오게끔 하셨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하오."

그러자 그녀는 치마를 입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떤 사람이 천을 한 장 주어 그것을 두르고 나자, 부처님께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라"는 법문을 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녀는 순식간에 수다원과를 얻었다.

마침내 비구니가 된 그녀는 어느 날, 발을 씻고 있다가 세 번이나 물이 멀리 튀어 가거나 가까이 방울져 떨어짐을 보고 사람도 어려서 죽든,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 죽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물이 생기고 사라지듯 생멸(生滅)하는 것이 중생의 생사(生死)임을 명확하게 알았다.

이때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천안통으로 보시고 광명을 보내어 그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말씀하셨다.

"빠따짜라여, 너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제 너는 다섯 감각의 범주(五蘊)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감각의 범주들이 영원치 않으며, 불안정하고, 하찮은 것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백 년을 산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설법이 끝나자 그녀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법구경>과 <장로니 게송>은 전하고 있다.

수행자가 색(色: 물질) 수(受: 감수작용) 상(想: 표상작용) 행(行: 의지와 욕구 등 정신작용) 식(識: 인식작용) 등 오온에 대한 정견이 없으면 보이는 현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나의 것으로 집착하여 괴로움에 빠진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오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는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행위를 하고 계속 그러한 성향을 쌓아간다.

그러나 수행자가 매순간 오온의 생멸을 바르게 관찰하고, 오온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알면 실재하지 않는 '거짓 나'에 묶이지 않고, 오온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불설오온개공경>에서 부처님은 "나의 제자라면 이 5온을 관찰하여 '나'와 '내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하고 나면 곧 세간에 취하는 주체(能取)도 취할 대상(所取)도 없으며, 또한 전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스스로 깨달아 열반을 증득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양산 통도사가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4월 12일 입재한다. 12일 회향하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는 혜남 스님을 전계사로 2박3일간 이어진다. (055)382-7182

●**해인사 〈지장경〉 강설 대법회**=합천 해인사가 3월 22일 오후 3시 제12회 〈지장경〉 강설 대법회를 봉행한다. 보경당에서 열리는 〈지장경〉 강설 대법회는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055)934-3000

●**제1기 초보자를 위한 성인 영어 담마스쿨 개강**=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불교와 일반영어회화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제1기 초보자를 위한 성인 영어 담마스쿨을 개강한다. 4월 1일~5월 23일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전반)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저녁반) 강의가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3월 27일. (02)6012-1731

●**국제선원 무상사 일요참선법회**=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가 매주 일요일 참선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조실 대봉 스님과 주지 무심 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실수를 할 수 있다. 오후 1시 30분~2시 40분 참선을 하고 3~4시 영어 법문이 이어진다. (042)841-6084

●**정토회 100일 출가**= 정토회 100일 출가가 3월 24일 입재한다. 100일 출가는 ▲나를 바꾸는 수련-깨달음, 일체, 나눔, 집중수련, 사찰순례 ▲일과 수행 그 아름다운 조화-만배정진, 새벽예불, 발우공양, 참회기도, 포살법회, 수행공동체 생활, 일 수행, 마음 나누기 ▲불교사상강좌-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실천적 불교사상 등 정토불교대학 강좌 ▲특별수련-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순례, 불교대학 특강수련 ▲NGO 실무실습-(재)정토회, (재)평화재단, (사)JTS, (사)좋은벗들, (사)에코붓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4)571-6031

●**위빠싸나 수행처 보리수선원 이전법회**=서울 보리수선원이 3월 22일 오후 3시 이전법회를 개최한다. 압구정동 인근으로 이전해 현재 집중수행과 장기 수행자를 위한 일인용 방을 증축중이다. 이전법회에서는 우 치 킨다 사야도, 테라와다 스님등 12명의 법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괄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新 유식학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오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석가모니불 양류관음 천수천안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산신님 나한님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반정은 짧고 수난과 굴욕은 길었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㉝

16대 인조와 인열왕후 - 장릉

인조 1595~1649(55세)
재위 1623.3(29세)~1649.5(55세)

장릉(章陵)은 조선 16대 인조(仁祖, 1595~1649)와 원비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 한씨의 합장릉이다. 인조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당인 대북파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재위 중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세 차례나 서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다. 인열왕후는 소현세자, 인평대군을 낳았고 용평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승하했다. 인조는 왕후를 파주부 북쪽 운천리에 장사지내고 그 오른쪽에 미리 자신의 수릉(壽陵)을 마련해 두었다가 승하 후 그곳에 묻혔다. 능 주변과 석물에 뱀, 전갈, 벌레 등이 집을 지어 불길하다 여겨 1731년(영조7)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처음의 능은 건원릉의 석물제도를 본떠 십이지신상과 구름무늬를 보조한 병풍석, 장명등, 석수 등을 상설했는데 천장하면서 병풍석과 혼유석, 난간석, 장명등은 새로 만들었다. 다른 석물은 그대로 옮겨왔다. 장릉은 17세기와 18세기 석물이 공존한다. 사적 제203호. 경기도 파주시 갈현리 산25-1 면적 34만5186㎡(10만4602평)


장릉 제향의식.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반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5000년 역사를 통틀어 최대 굴욕이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은 세계 해전사에 연구 대상인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한순간에 박살난 수난이었다.

임진왜란 중 의승군의 활약으로 상승세를 타던 불교의 위상이 인조(16대) 대에 다시 꺾인다. 인조는 즉위 후 바로 승려의 궁성 출입을 금했다. 그런 와중에도 승려들의 애국심은 변함없었다. 남한산성을 견고한 요새로 축성한 것은 승려들의 공력이었다. 팔도도총섭 각성의 지휘 하에 완공되었다. 불심으로 축조된 남한산성이 외교력의 부족과 국력이 허약하여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은 발발, 전개, 결말이 참으로 치욕적이다.

인조정권은 광해군 때 후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친명배금정책을 실시했다. 이무렵 선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형제 관계를 맺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1627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침략했다. 이른바 정묘호란이다. 의주를 거쳐 평산까지 함락되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했으며, 최명길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 대표가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오랑캐와 형제관계를 맺다니. 인조와 당시 집권세력의 심기가 편치 않았다. 힘은 없으면서 분기만 하늘을 찔렀다. 그래서 다시 악수(惡手)를 둔다. 1635년 인조비 인열왕후가 승하하자 능을 한양 북쪽에 조성했다. 오늘날 파주시 운천리, 임진강 남쪽이다. 병자호란의 불씨가 여기에 있다.

국장 발인 행렬의 모습과 출병하는 군대 행렬은 광경이 비슷하다. 깃발을 펄럭이며 기마병과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한다. 인열왕후 발인 때 6770명의 대규모 인원이 통일로를 따라 북진했으니, 이는 북침하는 출정군과 흡사하게 보인다. 첩보를 입수한 청나라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한 것도 굴욕의 원인이다. 이 일대가 능으로 택지되자 756기에 달하는 백성들의 묘는 강제로 이장 당해야했다. 이중 무연고 묘가 667기이고 연고 있는 묘가 89기라고 하나 무연고 묘는 대부분 이장할 비용이 없는 백성들의 선조묘로 추측된다. 당시 운천리에선 '왕비를 묻는데 수백기의 백성들 무덤을 파헤쳐야 하느냐'는 원망의 소리가 컸다고


장릉 능침을 지키는 석호.

조선 최대 굴욕 병자호란 발발
청과 군신관계 맺는 조약 체결
삼전도에 항복의식 비문 세워


삼전도 항복의식 부조비.

한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민심을 돌보지 않았다.

1636년 12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형제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입해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정권은 이를 막지 못하고 봉림대군 · 인평대군과 비빈을 강화도로 보낸 뒤, 남한산성으로 후퇴하여 항거했다.

조정에서는 전쟁 수행 여부를 놓고 김상헌 · 정온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와 최명길 등 주화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주화파의 뜻에 따라 45일만에 항복을 결정하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군신의 예를 맺었다. 이와 함께 소현세자 · 봉림대군과 척화론자인 삼학사, 즉 홍익한 · 윤집 · 오달제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삼학사는 결국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남한산성과 함께 잊지 말아야할 역사의 유물이 삼전도비이다. 높이 3.95m. 너비 1.4m. 무게 32t.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다. 청태종은 항복의식을 행한 삼전도에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당대의 문장가 장유 등이 지은 글을 청에 보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고 거부했다. 마침내 인조의 특명으로 이조판서 이경석의 글이 받아들여져 이를 비석에 새기도록 했다. 이경석은 후일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평생 동안 문자 배운 것을 한탄했다.

공조에서는 삼전도에 비단을 높고 크게 축조한 다음 비석을 세웠다. 글씨는 서예가로 명성을 날렸으며 '이충무공순신비'의 비문을 썼던 오준이 썼는데 그는 평생 그 한을 안고 살다죽었다.

결국,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장소였던 삼전도에는 1639년 12월 8일 민족 최대 치욕의 상징인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가 세워졌다. 비문의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 등이다.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滿洲文) ·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비문이 새겨져 있다. 한 개의 비석 안에 3개국 문자가 들어 있는 특이한 비석이다. 또한 비 머리의 이수, 받침돌의 귀부 조각도 정교하여 조선 후기의 가장 우수한 조각의 하나로 꼽힌다. 원래 석촌호 주변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치욕적인 의미 때문에 청일전쟁 때 매몰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다시 세워지고, 1956년 국치의 기록이라 해서 다시 땅 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수난을 당했다.

서울시는 후세들에게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교훈이 되도록 비 일대에 5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 여기에 당시의 모습을 그린 부조비(浮彫碑)를 세워 1983년 5월 문을 열었다.

인조가 누워 있는 장릉은 비공개 능이다. 공개 못할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 워낙 외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역정을 대변하듯 외롭고 쓸쓸하다.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동조 세력과 함께 혈기 왕성하게 반정을 일으켰으나 재위 내내 불우했다. 정묘년, 병자년의 전란을 호란(오랑캐의 난)이라고 겨우 기록했지만 참담한 굴욕의 역사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제16대 인조 가계도

- 선조
  - 5남 인빈 김씨
  - 원종(정원군)
    - 장남 **제16대 인조** (능양군, 1595~1649) ●재위기간:1623.3~1649.5 26년 2개월 ●부인 : 5명 ●자녀 : 6남 1녀
      - 인열왕후 한씨
        - 4남 **제17대 효종** (봉림대군)
        - 인평대군
        - 용평대군
      - 장렬왕후 조씨(자식없음)
      - 귀인 조씨(폐출)
        - 2남1녀 숭선군
        - 낙선군
        - 효명옹주
      - 귀인 장씨
      - 숙의 나씨
    - 인헌왕후 구씨



초여름 꽃 주위의 잎 3개가 어느날 갑자기 백색으로 변해 **'삼백초'**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또 꽃이 희고, 잎이 희고, 뿌리가 희다고 **'삼백초'**라고 한다. 백색으로 변했던 잎이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본래의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식물로 우리몸을 정화하는 신비의 **'정화초'**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효능 때문에 몇종의 수난을 겪어온 삼백초를 **(주)천둥소리** 김상목 원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황토 삼백초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력과 특화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있다.
현재 (주)천둥소리에서는 황토 삼백초를 먹기 편하도록 제품화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주)천둥소리 055)945-2976

전 국 대리점 · 대구 : 010-2531-4785 · 인천 : 011-336-5843 · 대전 : 010-7752-6009 · 대전 : 042-536-8852 · 전주 : 010-5706-1002 · 부산 : 017-556-8311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정토불교 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위주 수업
- 불교전법(포교)활동을 원하시는 분
-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
- 수시 상담 가능

연락처: 종무소 02)2208-609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나비춤,
사찰행사,49재,점안식, 전통무용 (살풀이,지전춤,
극락무),찬불가 가야금,학인모집,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제 1기생 모집(6개월,1년과정)
2008년 3월 8일 입학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빙의천도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명리.육효 수강생모집
명리 .육효란
단 하루를 배우셔도
올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용 덕 사
문의 051)506-4038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80)027-4684
010-6730-118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개인지도 · 숙식제공
명리,육효,육임,관상학
구성학,풍수,음양택,성명학,
최면술,빙의,전생,영가치유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7권)
법화경(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을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저작권과 불사인연
1. 유발 소승은 30년간 역학지도와
2. 저서를 백여권 쓰고, 법인 종단을
3. 창종한 지 7년 부득이 저작권 급매
4. 불사를 하고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2693-771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748-30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보시금 100만원)
010-7160-273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는 상담후 결정)
경북지역
나이 50-65세까지
010-3188-510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1-744-165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천년고찰)
011-527-0637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51)242-1684
016-9730-30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남은 여생을 무보시로
보내실 스님, 보살님
(부부도 가능)을 모십니다
▷위치 : 전남
011-9906-0366

큰 법력으로 정말 신심나며
재자와 영가가 동시에 해탈하는
한글, 한문, 천도재,
49재 및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많이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장 합장
011-854-8107

경기 수원근교 부처님
도량에서 자유로이 기도,
공부하며 계율지킴에
보임하실 법우님
부담없이 연락바랍니다
(성별 무관하며 무보시로
숙식가능함)
031)375-183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10-2041-6958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 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3월6일 개강(18:30분)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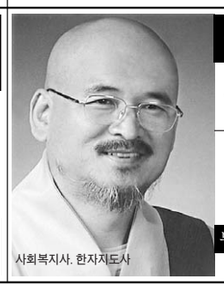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지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671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지하철역 입구)
- 4층 건물중 3층
- 법당, 방3, 주방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시설완벽)
010-2807-7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평수 79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
- 비구니 스님 기도처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60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 안내함
055)674-5978
011-9393-23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안산 신도시 앞)
아파트 3만세대 입주예정
- 약 70평, 7층 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 문의 후 협의가능
041)565-9111

구리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시내
- 건물 : 상가주택 4층 중 2층 단독
- 평수 : 30평
- 삼존불, 즉시법회 가능
상담실, 작은 주방
- 보증금 500만원 /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674-509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 5,064㎡(약1500평) 임야
- 가액 : 평당 28,000원
-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
011-647-4444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한적하고 쾌적함.
현재 사찰 운영중
- 포항에서 10분거리
- 1층 선방 2층 법당 합 40평
- 대지 200평, 요사채 10평
- 주차장 완비
- 가액 : 2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236-2464
010-4905-5697

사찰 팬션 다목적부지 안내
- 천하절경, 풍수지리명당
춘천-서울 고속도로 강촌IC 부근
(춘천시 남면)
- 야산 및 지목 전
평수 2133㎡(645평)
- 관리지역 남서향
토목공사,진입로 포장 완
전기 有
- 가액 : 평당 35만원
011-9797-3830

사 찰 전 세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 2리
- 대지 : 2000평
- 법당 1, 산신각1,
공양실 20평, 방2
- 부처님 5불, 몸만오시면 됨
- 전세 3500만원
010-4934-5520
010-8854-275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교방동
(서원곡 무학산 밑)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비구니, 보살, 법사님 적합
- 가액 : 건물 등기 및
시설비 4,500만원
010-9235-9318
055)353-44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앞
- 평수 : 4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6269-66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06-4661
011-545-506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청 주변
- 평수 : 40평. 법당, 방2, 주방
- 주차시설편리
-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
시설비 포함
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자 모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태백산 오전 약수탕)
- 부지 :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
- 건물 : 법당 25평
(춘양목 5포 7포, 단청, 삼단 닷집)
-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
- 현대식 부엌, 화장실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
- 가액은 협의 후 조정
017-848-33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송파구 석촌동(송파역2분거리)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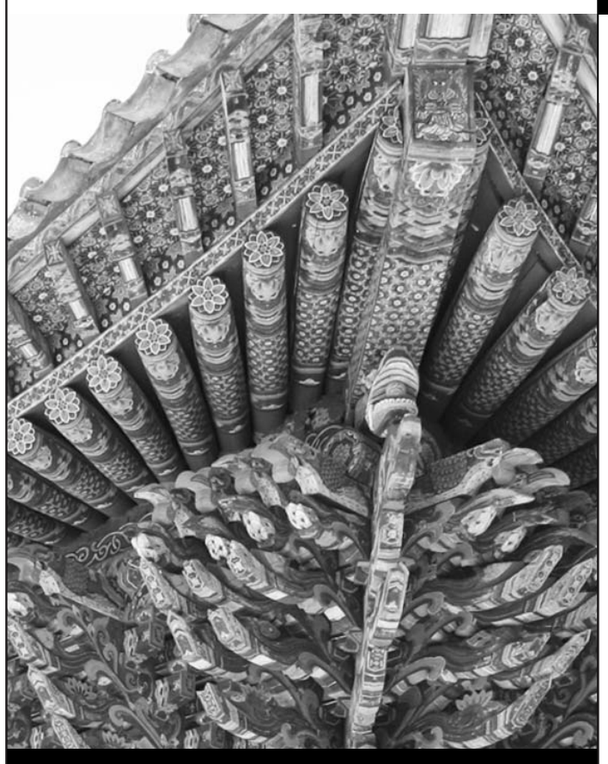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206㎡(약366평)
- 임야 : 130㎡(약40평)
- 요사 : 198.24㎡(약60평)
- 대웅전 : 109.44㎡(약33평)
- 삼성각 : 30㎡(약9평)
- 실사용평수 : 약 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협의요
011-9143-00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 2층 50평
- 최요지
방 2칸
- 전세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 2800만원
011-591-5277

명당 사찰터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 16,000평
-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
경관좋음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5639-897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유명 전통 사찰 -

- 위치 : 지방도시 외곽 10분거리 ●부지 : 5,000평
- 전통사찰 및 일반유적지
- 납골허가 5000기 중 약 400기 안치
- 주차 : 대형버스 20대 주차가능
- 가액 : 40억(즉시 운영가능)
- 대리상담 불가하며 직접상담 시 보안유지 및 방문상담함

- 비구니 스님 절에 기도 및 공부하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의령 정곡
- 대지 :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 요사 30평(공양간)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2억 8천만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5포)
- 지장전 30평,요사채 40평, 산신각5평 공양간 45평, 대종각, 사무동(2층)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격:15억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명부전 : 30평(목조,단청)
- 산신각 : 10평(목조,단청)
- 요사 : 3동 90평
- 기타 : 종각,석불,석탑,석등
- 가액 : 8억원
- 특징 : 도심의 전통사찰로 역사깊은 고찰임

- 위치 : 경남 사천시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1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산중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12평
- 요사 : 주지실(목조) 18평, 식당 40평, 요사 52평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도로 포장)
- 환경 : 수려한 산속 기도처(좌청룡 우백호 명당)
- 용도 : 납골당, 양로원 토목공사완료
-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상담 후 결정)

055)356-6887(야)/010-3865-341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전철역에서 5분 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자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 최고의 시설로 유학관계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011-9850-13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평수 : 70평
- 2층 건물중 2층(옥상 사용가)
- 법당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상식선에 절충가)

010-3120-10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 정원, 잔디, 연못 설치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77-7913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당고개역 10분거리)
- 총평수 : 807평(전,답)
- 건물 : 조립식 47평,임법당,방3개 욕실, 화장실(실내 2개)
- 하우스 2동, 50평, 15평
- 가액 : 5억6천(내방 후 절충가능)
※오솔길 100m 들어옴

011-9110-7659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정문앞)
- 3층 종무실 27평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4층 법당 27평
- 3블, 홍탱화, 흑탱화 옥탑 16평 산신각,
- 스님침실, 화장실, 주방
- 보증금 : 4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9-424-409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별채 4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7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구미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40평, 요사채 25평, 총 65평, 방3개, 거실,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금 1500만원
- 꼭하실분 가격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매

010-7511-8474

토 굴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
- 대지 56평, 임법당 20평
- 바로 입주 가능 꼭 하실분 가액 절충

018-561-53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에어컨 3대, 전광판 2대 법당조명, 음향엠프시설 완비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0-6287-355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 고양시 토당동 (능곡역 2분 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3층 건물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8천만원

010-3116-199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 경기 부천 신도시 중앙
- 4층 건물중 2층
- 평수 :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0-3131-109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하양읍
- 대지 : 475평, 밭(전) 238평 목조신축법당 : 31평 (약사여래부처님 7자반, 좌대 4자반)
- 주지실 15평, 구건물요사채 2동(25평)
- 동네 산밑에 있음
- 가액 : 6억(절충가능)

016-813-74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 평수 : 80평
- 3층 건물중 2층
- 보증금 1000만원, 월62만원 시설비 : 2500만원 시설완비, 즉시법회가

055)372-2090
010-2914-35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평, 건물 5동
-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 조경완비 산세수려함
- 가액 : 1억 7천 8백만원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 평수 : 60평
- 4층 건물중 4층(신축건물)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9755-22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법당 10평, 전답 1200평 대부 산임야
- 요사채 2동 20평
- 가액 : 1억1천만원

011-511-7736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18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창고 1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평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토 굴 안 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내당동
- 3층 건물 중 3층
- 법당 40평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별도)

010-6689-5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사시는 곳
- 3층건중 중 3층 14평
- 거실1, 방1, 주방, 목욕탕, 세탁기, 붙박이장
- 교통 편리한 곳
- 가액 : 5,460만원

054)777-08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평수:22평(3층)
- 법당,방1,상담실,주방
- 사주보실스님 적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 월30만원 시설비1200(절충가능)

011-9016-1096
032)679-5764

아담한 양자 양도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면소재 중심에 있는 암자)
- 대지 70평, 건물 40평
- 삼존불, 탱화, 신중, 영단, 용왕단
- 가액 : 7,500만원

011-509-0124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특)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암자 터 및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총평수 : 966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시내중심가
- 평수 : 46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1, 방3, 사무실, 주방, 세면실2 관음도량, 150 원불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1500만원

011-258-114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사 찰 임 대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척면(시내 10분거리)
- 부지: 대지 300평, 시유지100평 (주차장)
- 건축:요사채 35평 (요사채 일부 임법당 사용중)
- 삼존불 신중님 칠성님 산신탱화
- 엠프 집기 비품 일체 구비
- 산세경관 수려하고 교통편리
- 몸만 들어오셔서 절운영하실분 적합
- 전세 9천만원-1억 (절충가능)

011-9038-65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불자정보 계속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주역원전 강좌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주역의 대가 **大山 김석진**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강의를 한다.

「주역」 매주(수) 오전 11시 ~ 1시
哲山 최정준 선생, 3월 개강

그 외, 대산 선생님의 「시경(화요일 오후)」강의를 비롯해, 「노자의 도덕경(3월 개강, 월요일 오전)」, 「이천역전(4월 개강, 목요일 오전)」, 「춘추(월요일 오후)」, 「장자(목요일 오후)」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 02)2237-9137, 2237-8970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2층(1호선 동묘역 3번 출구)
www.DONGBANG.or.kr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제3기 일반인, 건축, 조경, 인테리어 실무자들을 위한

풍수건축인테리어 전문가과정 수강생 모집

행운풍수는 고전 풍수이론과 현대 건축, 인테리어 실무의 완벽한 조화를 통하여, 인간의 행복과 행운을 찾아주는 웰-빙 風水론을 실현하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강의 목적 및 수강대상
「쓰기에 따라 장군이 나오기도 하고 강도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풍수비법입니다.」 본 강의는 한정된 공간(집, 사무실, 상가 등)을 풍수논리에 맞게 구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이 아프신 분, 일마다 사사건건 장벽에 부딪치는 분, 밤새워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수험생 등은 대부분 풍수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조빈모부(朝貧暮富, 아침에 가난 했는데, 저녁에 부자가 됨.)의 풍수이론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강의 내용
풍수지리의 근본과 목적./ 풍수이론의 이해와 방위./ 풍수이론의 원리와 가상학./ 주택의 중요 포인트와 사람과의 상호관계./ 복이 머무는 방위와 흉한 방위./ 나쁜 집 고치기와 수맥의 탐사./ 풍수건축과 사람과의 조화./ 사람에 따른 가구, 색상, 침대, 책상배치./ 사람에 따른 인테리어 소품, 액자, 배치./ 풍수논리로 본 이사, 직장, 동업자, 택일, 여행, 상담, 의상코디./ 풍수논리의 현장 적용 방법 실습 등.

▣ 강의 안내

모집인원	개강일시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50명(선착순)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18시 30분	3월 20일~ 5월 11일	18:30~21:30	이론 : 일일 3시간(8회) 실습 : 일일 8시간(2회)

▣ 강 사
김 경훈(행운풍수인테리어연구원장) 직강
※저서: 양택삼요 역해, 태정요결, 수정요결, 복 주는 책, 양택풍수의 원리, 공간창조의 풍수논리, 풍수인테리어 정론, 풍정요결 등

▣ 교육비 및 입금계좌
교육비:750,000원(수강료, 교재비, 패철, 수맥 탐사봉, 현장 실습비 포함), 카드 결제 가능

▣ 교육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2-36(화니 빌딩 4층)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강의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에서 100m 지점

▣ 특 전
1.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풍수건축감정사] 자격 인증서 수여.(교육 수료 후 평가)
2. 수료 후 사단법인 행운풍수지리학회 학술회원 자격 취득으로 지속적인 풍수공부 가능.
3. 풍수건축인테리어 컨설팅 전업시 적극 지원.

▣ 문의 및 접수처
행운풍수인테리어연구원 ☎031)798-4595~6, 011-399-7555,
E-mail : captain@luckyfi.com / 인터넷 www.luckyfi.com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 02)929-4646, 011-9902-4640

교육주관 幸運風水인테리어硏究院
자격인증 社團法人 幸運風水地理學會
교무주관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사단법인 한국수맥협회

수맥탐사 및 교육생 모집



• 땅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055)606-5082 / 019-582-5081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문의전화 : 053)426-1037
▣ 전문상담 : 서일영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 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 지장청, 시왕도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오공향, 유원승, 요잡작업,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 예수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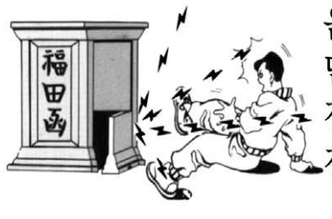
2.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 상시모집)
8. 연 락 처 :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3월 중순 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의 소식을 손효선 기자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귀 사찰의 법회, 불사 및 행사 등은 충청지사에서 전문 기자를 통해 취재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취재 및 광고 요청 방법

◆ 전 화 : 043)732-5560
◆ 핸드폰 : 혜철 지사장 010-9422-8453
손효선 기자 010-9577-2209
◆ 메 일 : 충청 지사장 ksson108@hanmail.net
손효선 기자 mindinhot@empas.com
◆ 팩 스 : 043)732-5520

현대불교신문사 충청 지사장 혜 철 합장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4) 청도 운문산 운문사

사찰의 설화는 픽션이 강한 신화와는 달리 사실성(史實性)이 매우 높다. 창건설화에는 역사적 인물과 함께 실제 우리 생태계의 동식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당시의 생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케 해준다.
까치나 파랑새는 사찰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조류이다.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인 청도 운문사 창건연기설화에도 까치가 등장한다.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에 모두 까치가 등장하여 중창할 절터를 점지해준다. 그 전에 신승이 초창했다는 '대작갑사(大鵲岬寺)' 이름에도 까치 '작(鵲)' 자가 들어가 있다. 까치는 마을 주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이다. 따라서 신승이 운문사를 창건할 당시 이미 인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유추케 해준다.
운문사가 자리한 운문산은 해발 1240m의 가지산 식솔이다. 가지산(加智山)은 '까치뫼'의 이두(吏讀)로 된, '까치산'을 한자로 음역한 이름이다. 운문사에서는 운문산을 '호거산(虎踞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운문산중의 암벽(虎踞臺)이 웅크린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운문천 해감.

겨울잠 깬 개구리 '봄 기지개'

운문천 따라 늘어선 노송·희귀종 처진소나무 볼거리
북방식물 노랑무늬붓꽃 사리암 주변에서 관찰되기도

운문사로 들어가는 길은 청도와 경주에서 이어진다. 운문호는 어느 길로 들어가도 만나게 되는 인공호수이다. 가까이 있는 큰 절에서 운문호에다 붉은귀거북을 놓아주는 방생법회를 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운문사는 소나무숲이 좋은 절이다. 소나무숲이 매표소부터 운문천을 따라 1㎞ 가량 절까지 이어져 있다. 군락을 이룬 소나무들은 높이 20~30m에 수령이 대략 100년 안팎인 노송으로, 전형적인 우리 육송이다. 소나무숲을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양분하고 있다.

숲속 작갑교 가까이에 느티나무와 전나무 연리목이 있다. 수령이 반백년이 넘는 두 나무가 줄기 밑둥부터 얼싸안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완벽한 연리목은 흔하지 않다.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면 좋은 볼거리가 될 터.

소나무 군락이 끝나면 왕벚나무 가로수와 낮은 담장이 경내로 안내한다. 운문사 전각들은 모두 평지에 좌정하고 있다. 흔히 산중절에서 보이는 석단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거의가 운문산을 향해 남향을 하고 있어서 전각 뒤쪽이 허하다. 허한 뒤통수를 아까 지나온 소나무숲이 병풍이 되어주고 있다.

봄이 되면 사중에서 소금단지를 새로 묻는다. 화마를 물리치기 위한 오랜 벽사의 풍습이다. 작갑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 앞에도 산중기도 회향날에 맞추어 소금을 하얗게 뿌린다. 소금을 뿌림으로 해서 비로소 운문사는 화마가 범접할 수 없는 해인(海印)의 절이 되는 것이다.

운문사는 비구니 수행처 답게 경내를 아름다운 화목 중심으로 조경을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지지 않는 꽃절이다. 경내 한갓진 곳에는 20여 평의 온실을 두고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다. 청풍료 앞에는 회화나무를 열식하여 여름철 그늘을 만들어 지표면의 복사열을 막아주고, 육화당 앞 빨래건조장에는 향나무를 심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채경당 앞 굴뚝에는 능소화를 올려 여름이면 꽃기둥을 만들고, 불이문 옆 굴뚝에는 사철 푸른 줄사철나무를 올려서 조경했다.

경내 조경수로는 역시 천연기념물인 처진소나무가 0순위이다. 가지가 밑으로 처져서 우아하면서도 자애로운 보살의 수관을 보여준다. 현재 가지가 넓게 뻗어 갈라질 것을 염려해서 받침대를 세워 두고 있다. 400년 노송인데도 노익장을 과시하듯 솔방울을 들이 튼실하다.

죽림헌으로 건너가는 극락교 아래로 운문천이 흐른다. 하상은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갈과 모래가 많이 나타난다. 운문천 곳곳에 깊고 맑은 소(沼)가 있는데, 전설의 이목소도 그 중 하나이다. 햇볕이 따사롭고 물 흐름이 정체된 얕은 물속에는 벌써 해캄이 돋아났다. '물이끼'라고도 부르는 해캄은 한해살이 녹조식물로, 머리카락 모양의 사상체(絲狀體)로 구성되어 있다. 깨끗한 물일수록 더 싱싱하고 양도 많아서 운문천 수질의 지표종으로 삼을 만하다. 운문사 지역에서는 버들치, 갈겨니, 밀어 등이 우점종으로 관찰된다. 물이 차서 그런지, 아직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장군평은 주변 농경지는 물론 운문사 사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평지이다. 현재 일부는 연못과 정자가 있는 사찰 소유 휴양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원에는 다양한 우리 화목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작은 수목원을 연상케 해준다. 식물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자연학습장으로도 훌륭하다. 스님들에게 식물과 조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공간으로서도 훌륭하다.

사이사이에 과일나무를 배치하여 가을에 열매를 완상하도록 한 것도 비구니스님들만의 재치일 것이다.

금반향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지역을 원산지로 한다. 높이는 약 20m까지 자라며, 나무줄기는 붉은 빛을 띤다. 잎의 일부가 노란 금색을 띠는 것을 금반향나무, 은색을 띠는 것을 은반향나무라고 한다. 사찰조경에 쓸 만한 나무로, 번식은 열매를 발아시켜서 묘목을 얻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왕참나무를 비롯해 태산목, 중국단풍, 풍년화, 나무수국, 독일가문비, 백송, 일본목련, 나무수국, 은단풍, 서양호랑가시나무, 금송 등 외래 조경수가 너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초본류의 경우도 원예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리암 주차장까지는 포장도로가 나있다. 1991년부터 휴식년제를 두어서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출입을 제한해온 덕분에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었다. 특히 노랑무늬붓꽃은 북방식물로, 한동안 팔공산이 남한계로 알려져 왔으나, 사리암 주위에서 관찰되어 학계에 새롭게 보고되기도 했다.

운문사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은 식재된 소나무와 잣나무 군락이 있다. 모두 20년 안팎의 수령으로 보인다. 그 위로는 참나무류 중심으로 낙엽활엽수가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노거수들로는 수령 50년 안팎의 굴참나무들이 손꼽히는데, 굴피를 채취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봄눈이 아직 운문산 중턱을 덮고 있지만, 개울가는 완연한 봄이다. 고인 물에 한국산개구리가 벌써 겨울잠에서 깨어나 여기저기 말간 알을 낳아놓았다. 산개구리는 개구리 가운데 가장 먼저 겨울잠에서 깨는 종이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간에 꼬리치레도롱뇽도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운문산반딧불이는 1931년에 운문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채집지명을 종명으로 했다. 파파리반딧불이와 같은 종으로 판명되어 먼저 기록된 '운문산반딧불이'로 통일되었다. 우리나라 7종의 반딧불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다. 5월이면 운문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운문사와 산내 여러 암자 주변에서 관찰되는 조류로는 텃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운문천 계곡에는 물까마귀가 서식하고 있다. 3월은 겨울철새와 여름철새가 리턴매치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여름철새는 아직 보이지 않고, 검은머리방울새 등 몇 종의 겨울철새만이 눈에 띈다.

사리암 주변 바위에 검은머리방울새가 무리 지어 겨울을 나고 있다. 검은머리방울새는 머리는 검은색, 몸통은 황록색과 회녹색으로 치장한 예쁘고 앙증맞은 새이다. 침엽수가 많은 사찰 주변에 살면서 '쭈~잉, 쭈~잉' 하는 울음소리로 삭막하고 썰렁한 겨울산을 포근하게 해준다.

곤줄박이 몇 마리가 사리암에 붙박이로 사는데, 기도객들이 손바닥에 땅콩을 얹어놓으면 손바닥에 내려앉아 땅콩을 물고 간다. 이 곤줄박이를 탐방객들은 '깐돌이'라고 부른다.

사리암 계단길에 고라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시멘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고라니가 지나가면서 남긴 발자국이다. 주민 청문에 의하면 가끔 멧돼지가 큰절 주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운문천에 서식하는 수달이 장군평 공원 연못에 출현하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내원암은 새로 요사채를 지으면서 오래된 옛 건물을 뒤로 옮기는 복잡한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쇠밧줄로 집채를 얽어 묶어 기중기로 들어서 통째로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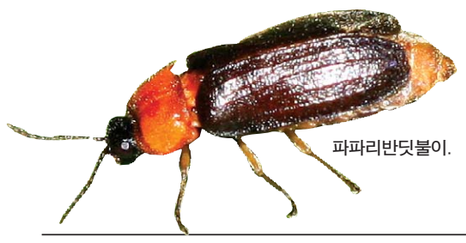
북대암은 운문사에서 북쪽으로 마주보는 지룡산 암벽 아래 자리하고 있다. 폐기와를 이용해서 비탈에 층층이 화계(花階)를 만든 것은 모두 비구니스님들의 손길로 태어난 것들이다. 경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층층이 가로로 놓은 것도 가상하다.

북대암은 운문사 지역에서는 가장 양명한 곳이다. 그래서 겨울을 성충으로 난 나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사과나무겨울가지나방은 1년에 딱 한번, 봄꽃보다 먼저 나타나는 봄의 전령사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검은머리방울새.


운문사 처진 소나무.


파파리반딧불이.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역학강좌안내

· **효타비결 전수반 모집** (스님에 한함)

※ 좋은이름 지어드립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길을 묻는 이에게

제671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19일(음력 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닌 사랑!

변치 않을 사랑을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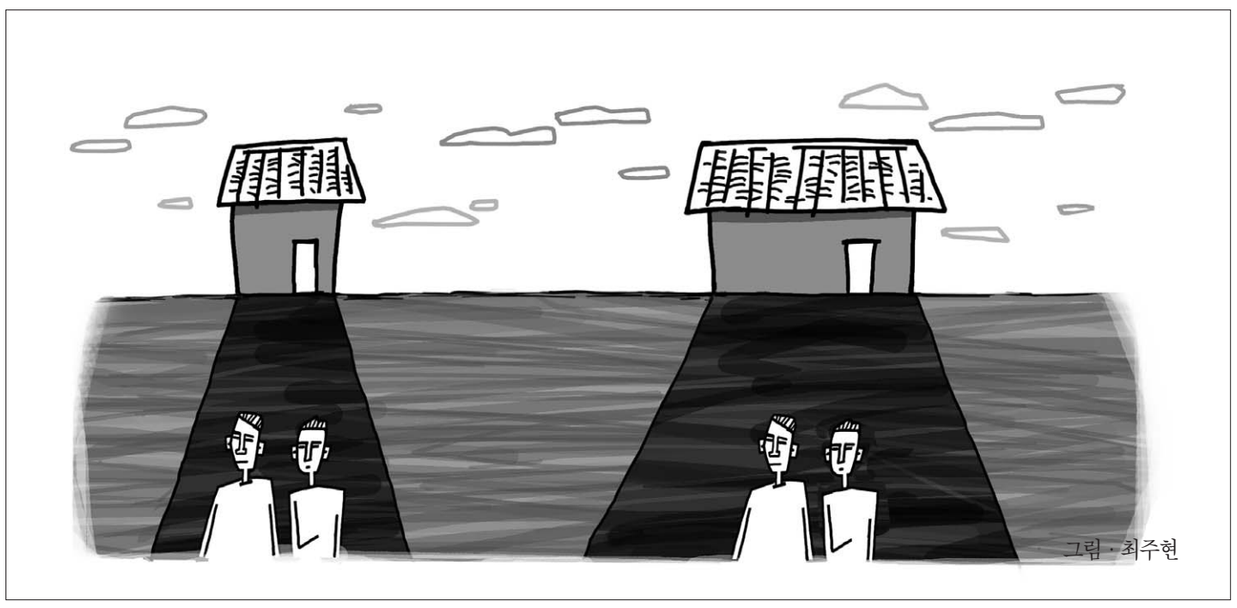
문 행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더 나은 조건과 형상이 다가오기만 한다면 지금의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을 언제든지 버리고 더 나은 상대에게 갈 수 있는 제 자신 안의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애인에 대한 사랑도 조건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지요? 진정 변치 않는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항상 '착을 떼라, 떼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착을 두지 마라, 또는 형제에 착을 두지 마라, 부부에 착을 두지 마라 하는데, 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착을 떼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뿌리를 싱싱하게 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것이냐?

물질을 보고 착을 둔다면 절대로 그것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부처님 법이란 죽는 것보다도 더 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착을 두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에 진짜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다는데도 물질을 보고 사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때에 따라서 벌이를 못해 온다거나 또 가정에서 부인이 아파서 드러누웠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아주 발에 턱턱 채일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불쌍하고 참 안됐다는 생각은 그지없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서 그저 고생하지 말고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벌이는 못하고 내내 몇년 간 놀아 보십시오. '저거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점차적으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사랑을 알려면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렵다.' 하는 것이 같이 들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상대를 두고 나를 두고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물론 물질로써 상대는 상대대로 있지요. 일부러 둘이 아니라고 생각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인연이 돼서 아는 사람이나 친척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부모 자식, 그 상대와 더불어 이게 얼마나도 착이 붙어 돌아가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착을 떼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사랑한다느니, 또는 거기에서 착을 두고서 잊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할 텐데….'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대로에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쌍방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림 · 최주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자활할 때까지 아주 부모를 그리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 홀연히 자기가 자활하고 자기가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은연중에 떨어집니다. 그 착이 떨어지는데, 다시 늙으면서 또 다시 그립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그리운 겁니다. 부모가 되고 늙어 가고 한다면 자기 그 부모를 다시 한 번 어린애가 되듯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에 가서 또 그립습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그리는 마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건 쭉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여념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부모는 항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듯이 그러한 마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육신을 붙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활력성을 넣어 줘야 몸과 마음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 몸을 붙들면 어떻게 하면 잘못 돌아갈 수가 있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몸은 놔두고 항상 마음도 아예 펼쳐 놓는 겁니다. 펼쳐 놓되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데에 그 자식이 가고, 그 자식이 가는 데에 내가 가는데 뭣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애탄지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야! 형제가 단 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은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물질의 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얘길 했답니다. "언제 형제가 있었던가. 너의 형제는 벌써 이미 죽었고 너의 형제는 없느니라." 하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뿐만 아닙니다. 요만치도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서 바꿔서 이날까지 점차 바꿔서 나왔습니다. 바꿔 나오는 동안에 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습을 바꿔서 갖다 놓으면 그 집 식구인 줄 알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면 저 집 식구인 줄 안다 이겁니다. 전자에 살던 인연은 아예 까맣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바로 봐서는 그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내 형제가 아닌 것이 없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없고 전체 이것은 내 남편 내 부인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깊고 깊은 줄은 정말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예전에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거는 내가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여직껏 끌고 온 나의, 바로 내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교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부모를 생각하듯이, 고아로서의 자식이 생각하고 찾는 그 마음, 또 부모가 자식을 잃고 찾는 그 마음이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수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오면서 나오게 된 그 동기를 볼 때 근본처인 부모, 그리고 그 근본처 부모는 멀리 있나 하고 찾았더니 글쎄 항상,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이렇게 모습을 바꿔 왔는데도 수없이 따라서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짜 사랑만 알고 진짜 사랑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한 방울이 흐르게 되면 강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눈물이란. 그런데 그 모습, 물건 아닌 진짜는 바로 여기 한 줄에 꿰여 있는데 왜 바깥으로 착을 두느냐 이겁니다. 그 모습을 따라 두느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거를 알면 바깥으로 그 모습을 찾아서 사랑하느니 뭘 하느니 그거 안됐느니 됐느니 하고 방황하고 다니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직하고 아주 태연하고, 태연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참 떳떳하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떳떳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가 같이 꿰어져 있건만 자꾸 마음이 달아나가니까 모습이 자꾸 방황하게 되고 같이 혼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습도 같이 돌아가지만, 동체지만 이 마음이 동심이기 때문에 그 동심의 근본처가 바로 각자 수없이 거듭거듭 해 나온,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그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 그 부모를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근본처의 참나하고 지금 현대의 나하고 둘이 아니어서 항상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바로 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 사랑 사랑'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만 불편하면 사랑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고요, "넌 나하고 살 수가 없어." 하고 나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덮어주고 서로 자기 탓으로 돌리면 모두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장애자가 돼서 밥을 떠 넣어 줘야 할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그런 이치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랑이 아닌 자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뭔 줄 아십니까? 자비는 사람들을, 서로를 모두 편안하게 해 주면서 서로 고통을 면하게 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면케 해 주면 스스로 편안해지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얄팍하게 입술에 붙여 가지고 사랑 사랑 하는데 그런 사랑은 진짜 사

☞26면으로 계속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寺,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입종시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 각1통
(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민국 제2회 맥(脈)수련회

1.21세기 인류의 문제와 진리의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2.한국의 鮮脈사상을 연구해 국내와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분.
(한국선, 진역명리, 육합풍수지리, 전통한방원론, 천부경, 도덕경...)
3.한국전통민방요법을 연구해 향토명의가 되고자 하는 분.
4.유전정보에 의한 유전자(DNA) 컨트롤에 의하여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수있는 원리강론
5.세계에 맥사상을 보급해 자신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맥수련 안내
일 시 : 2008년 3월 29일(토) ~ 3월 30일(일)
1박 2일 (매월 마지막 토 · 일요일)
장 소 : 충남 공주시 상신리 "자승정" 수련장
초청강사 : 白石 박 경진 선사님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주 제 : 세계적인 鮮脈 지도자가 되는 길
주 최 : 日 脈 太 學 敎
참 가 비 : 10만원(입학금 10만원)
교육문의 : 043)283-2278 / H.P 010-9701-0675
장소문의 : 041)881-9575

日脈太學敎 는
대한민국의 선맥을 보급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지도자 100명을 양성하여 국내와 외국에 파견할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命星 (九星氣學)

자신自身을 살리고 죽이는
상생상극相生相剋 천중살天中殺,
간지비법刊支秘法

⊙ 구성 간지지법
⊙ 구성실례(비법 · 비방) 공개
⊙ 구기성(九氣星)으로 보는 년운(年運)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 바이오리듬을 알게 되고, 작업과 적성, 동업 관계, 재물을 얻는 시기, 집 장만, 결혼, 연애, 섹스, 부부 상생 상극 관계, 시험 합격, 이혼, 재혼, 자식 번영, 택일, 이사 등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특히 간지점사(干支占事) 비법은 100% 효율이 발휘된다.



양장본 / 812쪽 / 값39,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바깥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놔라!

☞25면에서 계속

랑이 못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변덕쟁이를 사랑이라고 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랑한다' 그러고도 고질병이 들거나 병을 길게 앓는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선….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겁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입가에 붙이고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다. 결국은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닌 사랑입니다.

식물도 감정이 있는지요?

문 나무나 돌 따위같이 감각이 없는 것을 무정물이라고 해서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의 법문을 읽다 보면 나무나 돌도 생명이 있고 이 세상 만물 만생이 다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요?

답 왜 감정이 없겠어요? 이건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인데요, 산에 다니다 보니까요, 손가락도 잘라질 정도로 말아들이는 식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스치는 순간에 이파리가 이만큼 넓었는데 그게 그냥 따르르르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상하다.' 이러고선 그냥 막대기 하나를 집어 가지고 그걸 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잎이 그냥 쫙 말리면서 그거를 물고 영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으니까 그게 놓아지는데 보니까 그 나무때기가 은근히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약초요. 약초들도 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공 자리에 놓으라고 그러는 것이, 만약에 주인공 자리에 놓아서 내 마음이 큰 바다로 이루어진다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서 이 정수봉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물을 모든 만민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비가 오면 내리듯이…. 그러면 조그만 풀도 다 먹어요. 요만한 풀도요.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벌써 생각이 있어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말이에요, 흙이 모자라면 그것이 그냥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흙에 닿게끔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극하게 아파서 죽게 되니까 풀을 손으로 뜯으면서 '너, 나 좀 살려 줘. 나 죽겠어.' 하고 애원을 했대요. 이렇게 죽어 넘어졌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 옆의 풀들이 다 그냥 얼굴을 내밀고선 자기 액을 빼 주더라는 거죠. 자기 이파리 하나씩 빼서 입에다 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깨고서는 그냥 살아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 보고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풀들은 다 생각이 있고 다 사랑이 있고 의리와 도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또 악하게 쓰면 악한 업이 그대로, 자기가 요다음 생에 나올 때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았대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물이 아닌 식물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버드나무를 잘랐는데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도끼로 한 번 땅 치니까 피가 주르르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르지 못하고는 돌아왔는데 꿈에 '약 좀 발라 달라.' 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 네 생명만 중하고 내 생명은 중하지 않느냐?' 고 하면서…. 그걸 만약에 잘랐더라면 그 식구 중에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채식하는 게 있고 육식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게 채식하는 거는 인간으로 진화가 빠르고, 육식하는 거, 남의 생명을 마구 잡아먹는 거는 인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놔라!
>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그래서 무의 세계인 정신세계를 알려면 관 속에 들어가 봐야 안다. 죽어 봐야 아니까 죽어라. 여러분이 다 죽어라 이런 소리예요. '죽는 사이가 없이 죽어라.' 이 소리지, 아주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나눠진 것 같아…

문 절에 가 보면 부처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눠진 것 같고 절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용왕재니 산신재니 수륙재니 하는 것을 지내던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독교처럼 하나님 하나만 믿으면 쉬울 텐데 이것저것 따로따로 나눠진 것 같아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 물부처가 따로 있고 불부처가 따로 있고 흙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三世心)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無)'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흥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한 종지의 물인데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모아 놨다가 벌여서 헤쳐 놓고, 헤쳐 놨다 벌여 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가끔 그냥 그냥 모두 흩어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 놨어요,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지만. 그런데 깨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놔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 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래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래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빌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의식들이 미워요

문 스님, 저는 이 마음공부가 너무 좋고 꼭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젊다 보니까 이런저런 유혹에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렇게 한동안을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저를 오직 한곳으로만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리저리 헤매게 하는 제 안의 의식들이 너무 미워요.

답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에 올 선업 악업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는 지금 나오고 미래에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자체의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 속에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지고 과거의 업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그 통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뚫어지듯, 뚫어서 그 나무의 속이 탕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았으면 알을 까서 또 생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으면 알을 깔 수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합니다.

자생중생들이, 즉 말하자면 유마힐 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내 자생중생들이 병이 났으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지, 자생중생들이 건강한데 내가 왜 병이 납니까? 자생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인 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제각기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수라장이지 다른 게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덮어놓고 쪼죠.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 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딴데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맡기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아픈 거를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하면서 생활해 가시기 바랍니다.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룡(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

이번호는 칼라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 종 옥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웹 2.0문화와 정보의 수준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2007년의 인물로 자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평범한 이용자들인 '당신(you)'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만든 일등공신은 웹 2.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웹2.0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인터넷 환경과는 달리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말하며 블로그, UCC 지식검색 등은 참여 · 공유 · 개방이란 웹2.0 문화가 창출해낸 최근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웹2.0의 문화는 누구나 참여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더 방대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역효과도 만만치 않으며 때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의 가수 '나훈아'의 사건을 보라. 인터넷으로 유포되던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가 개인적인 것이거나 또는 연예잡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좁고 어떤 경우는 웃어넘기는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의 대상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이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에 의한 것이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3월 12일자 현대불교의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기사는 e-세상에 넘치는 엉터리 불교정보 대한 상세한 현황을 기획 취재하였고 이는 불교전문정보의 부족, 불교관련 네티즌의 활동 미비에 따른 자체적인 콘텐츠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적시한 바가 있다. 웹2.0의 문화는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정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엉터리 불교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포털사이트에 항의하거나 또는 백서를 만드는 것 등은 현 문화코드에 맞지 않는 단편적인 대책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정보란 정확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수준에 맞는 정보를 의미한다. 모든 정보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불교 정보라 하더라도 불자와 비불자를 위한 정보, 전문가와 일반인을 위한 정보, 어른과 아이를 위한 정보 등 그 활용용도와 눈높이에 맞게 가공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불교정보의 구축은 전문가에 의한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웹2.0의 문화에 맞게,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모든 불자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올바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은 종단과 교계 언론이 캠페인을 벌이고 비영리 기관이면서 모든 전문가를 갖추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손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관련 네티즌의 활동미비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메신저, 블로그, 등으로 대별되는 요즈음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웹2.0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에 불교계는 활동적인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포교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하고, 이들이 활동하며 지켜야할 양질의 불교 정보가 있을 때 불자 네티즌들이 불교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콘텐츠 정화에 나설 것이라 믿는다.

최근 <시크릿>이라는 책이 화제이다. 이 책은 서양인이 저술하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우리 내면의 숨겨진 힘, 즉 자성불(自性佛)을 믿고 간절히 관(觀)하며 행(行)을 바꾸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비밀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물질사회에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종합불교회관 건립 필요

한국불교 1번지에 '공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무기관과 교계단체들이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1년 혹은 2년 마다 이삿짐 싸기가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조계사 교육관에 자리잡고 있던 종단협의회 등 5개 단체가 퇴거를 요청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조계종 전법회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전법회관이 완공된다고 하여 불교계 단체들의 공간부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조계종 총무원과 박물관이 연접해 있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조계타운'은 누가 뭐래도 한국불교의 1번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무기관과 각종 단체들이 사무공간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는 것은 몹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예산부족으로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고 각종 단체들은 자립도가 낮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사명감을 지키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교계 단체들의 사무 공간 부족은 대사회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든 시대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불교가 보다 현대화되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줄기가 닿아 있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누가 나서든 대규모 불교종합회관 불사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군산시 화재진압 매뉴얼에 '박수'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성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화재에 대비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이 지역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후약방문 격일지라도 더 많은 문화재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매뉴얼 작성과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군산 소방서가 최근 지역 사찰들을 순회하며 소방훈련을 벌이고 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화재 진압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수로 칭찬하고 또 격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의 경우 관할권역 안의 사찰들에 소방차 진입이 용이해 매뉴얼 작성이 비교적 쉽고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를 것이다. 군산시의 매뉴얼 작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화재진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각 지방의 소방당국은 지역별로 작성된 문화재의 화재진압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완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재 화재진압 시범훈련도 갖고 모범 소방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 소방서가 문화재 지키기에 적극나선다면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도굴이나 도난으로부터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아직 화재진압에 대한 훈련과 매뉴얼 작성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사찰이 나서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 생엔 당신 안 만날래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⑮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다시 결혼합시다

"난 다음 생에도 당신과 다시 결혼할래."

뭐, 뭐라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김씨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남편이 식사하면서 꺼낸 말이었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생각해 보니 육십 평생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당신 같은 사람도 없는 것을. 괜히 화만 내고 잘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그렇지, 정말 날 힘들게 했지! 김씨는 가슴에서 울분이 왈칵 치밀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다시 만나자고? 부부로 또?

김씨는 지난 세월이 생각났다. 지긋지긋했다. 6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동생 시누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다. 시부모님도 이십년 넘게 모셨다. 그러는 동안 그나마 좀 있던 재산을 남편이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간 것이다. 사업한다고 날리더니 몇 년 후 재기한다고 애원을 했다. 할 수 없이 어렵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더니 또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없앴다. 그 후에도 무슨 무슨 사업한다고 돈을 해내라고 끊임없이 졸라대었다. 도대체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이었다.

난 만나기 싫다

김씨가 절에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못 살고 헤어졌을 것이다. 스님이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인연이기에 그 업을 녹여야 한다는 말씀에 조복했었다. 끊임없이 관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다. 남편 속에 계신 부처님을 불렀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것이 기도 주제였다. 십여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미운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남편도 전과 달리 성실하게 살려고 바뀌기도 하였다.

"아무리 그랬더라도 막상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자고 하니까 그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아니 이생에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다음 생에 또? "그렇다고 난 싫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굳이 가슴에 못 박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남편의 말에 빈말이라도 뭐라고 대답해 주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김씨가 말이 없자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김씨는 절에 가는 길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만약 다음 생에 또 이 사람 만나 또 그런 고생을 해야 된다면 하고 생각하니 너무 서럽고 자신이 불쌍했다. 스님에게 갔다. "스님, 남편은 좋겠지요. 그동안 제가 참고 녹이고 기도하고 관하고, 아휴, 자기 가족들 다 받아주고, 빚 다 갚아가면서. 자기야 좋겠지요. 그러나 전 뭡니까.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김씨는 "솔직히 스님, 전 다음 생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하고 울었다.

고정됨 없는 도리

스님은 "다음 생에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나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사님을 다시 만난다면 왜 똑같은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님은 김씨의 지극한 기도정진과 노력으로 업이 많이 녹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고정됨이 없는데 여자로만 태어나나요. 다음 생에는 보살님이 남자가 되고 거사님이 여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또 다음에는 훨씬 좋은 도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사님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김씨는 점차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고정됨이 없다. 내가 이생에 노력하고 있으니 업이 녹았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뭐가 되어 만날지 누가 안담. 왜 지금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이 마음공부를 알게 된 것이 한없이 감사했다. 안 그랬으면 남편을 원망만 하며 지내다가 다음 생에도 이대로 그 차원대로 살아갈 것이었다. 천만다행히 업을 녹이는 마음정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서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법어를 떠올린다. "인과니 업보니 붙이지 마라. 고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